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연군가적 성격 연구



200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이 현 주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연군가적 성격 연구

지도교수 김 쾌 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이 현 주

이현주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주 심 문학박사 고순희 인

위 원 문학박사 곽진석 인

위 원 문학박사 김쾌덕 인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1
2. 연구사 검토	5
II.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작자층	12
1. 서경과 왕실과의 관계	17
2. 작품의 창작배경과 창작시기	26
3. 작품의 작자층	42
III. <서경별곡>의 연군가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47
1. 작품의 연군가적 성격	47
2. 연군가적 성격분석	52
1) 이별의 거부와 충성의 호소	53
2) 신의와 충성의 강조	57
3) 체념과 관심을 호소	61
3. 문학사적 의의	66
IV. 결 론	69
참고문헌	72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Origination for <Seogyeong-Byulgok>
and Its Characteristics as Love Song for King*

Lee Hyeon j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Goryeo folksong, also known as 'the gasa of folk music,' was used as akjang(악장) in Goryeo dynasty, along with A-ak(아악) and Dang-ak(당악). It was not only sung in the royal court of Goryeo, but also handed down to be sung at the royal chamber of Joseon dynasty.

This study came up with questions about <Seogyeong-Byulgok> which was negatively evaluated in Joseon dynasty as it was one of 'the lyrics of merry love between man and woman' and which does not escape the similar notion nowadays, even though it was gasa of royal ceremonial music and sacrificial ritual music in Goryeo, it attempted to examine those questions. Also, the author's views were asserted based on the <History of Goryeo> about the background of the song's origination and the group of originators which are not clearly known despite many series of researches done so far.

Text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itially set a perspective that since <Seogyeong-Byulgok> was adapted from the minyo(popular songs) in Seogyeong at that time, it must reflect the unique historical features of that region. Seogyeong of Goryeo was developed by King Taejo as a political power base to check the local powerful clans in early Goryeo dynasty. Therefore, <Seogyeong-Byulgok> was originated from this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separation problem contained in the work was assumed to indicate that the departing subject, who is the king, is situated in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Seogyeong party and Gaegyeong

party.

Based on this assumption, finding a historical context for this work in <History of Goryeo> confirmed that this song was settled during the time from Myochung's Rebellion in King Injong period to when the revolt was finally calmed down. In King Injong period, externally, Jurchen who once obeyed Goryeo as a parent country grew up to give pressure that Goryeo must submit as a ruled subject, and amongst the internally chaotic situations, the revolt of Yi Ja-Gyum and Chuk Choon-Gyung burned the royal palace, derogated the authority of kingship. King Injong tried to check Gaegyeong party, which overgrew due to Yi Ja-Gyum's abusive use of power, with the power of Seogyeong party. Afterward, he once collaborated with Myochung and other people from Seogyeong party in an attempt to move the capital, but after he realized their false dreams, he took a different political view and separated from Seogyeong party.

At that time, Myochung made a revolt in Seogyeong, and this revolt causes Seogyeong party to internally disintegrate. It was concluded that <Seogyeong-Byulgok> was created at this period by Kim Jung-soon, Noh Young-Geo, and other power groups that supported the royal house in Seogyeong party, and they gained enough sympathy from the ordinary people to spread out the song. <Seogyeong-Byulgok> implies the competition to take the initiative between Seogyeong party and Gaegyeong party who were political stakeholders along with the royal house of Goryeo, and the song describes the life scenes of the people living in Seogyeong as missing and remaining loyal to the king during the process of subduing Myochung's Rebellion.

Also, after analyzing the song based on the author's opinion about the background of origination and the group of originators, it was found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ove song for ruler in that the content of the lyrics is about the loyalty to the king. That is, the song says that 'even though he left me, I am ready to follow him leaving everything - precious Seogyeong, my job, etc - behind, and my love and loyalty for him will last forever', thereby, the lyrics of this song could not be any less satisfactory to the central ruling class.

In addition, the format of love song that uses the female narrator, which

appears in other folk songs in royal court music along with <Seogyeong-Byulgok>, represents the feeling of love and the blessing for the king, and is one of the major features of folk song at that time as an akjang.

Therefore, <Seogyeong-Byulgok> is one of the lyrics of loyal subjects loving the ruler sung by the mouth of female narrator, along with <Junggwa junggok(정과정곡)>, and is a significant artwork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at it succeeded to the root, which ranges from <Wonga(원가)> to <Samiingok(사미인곡)>, of the lyrics of loyal subjects loving the ruler.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고려속가는 아악(雅樂)·당악(唐樂)과 함께 고려시대의 악장(樂章)으로 사용된 ‘속악(俗樂)의 가사(歌詞)’로 고려 궁중에서 가창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궁실에까지 전승되어 불리어졌다. 또한 속가는 <정과정곡>과 같은 개인 창작의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항(閭巷)의 노래인 민요에서 비롯되었고, 민요가 궁중으로 이입될 때 가사의 개변(改變)과 왕실 악곡에 의한 반복구 및 후렴구 등의 첨가(添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민요가 궁중 가악으로 승화(昇華)되면서 민요적 색채가 많이 퇴색(退色)되긴 했지만 속가에는 여전히 민요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¹⁾, 본래 민중 속에서 형성되어 그들의 공통적인 감정과 정서를 담아온 것이므로 속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사회상 속에서의 민중의 생활과 환경이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서경별곡>은 속가 중에서도 민요적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노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는 향유계층인 서경민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서경에서 오랫동안 민중들에 의하여 구전(口傳)되다가 악장으로 상승, 채택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 속가의 민요적 특징을 들면, ①작자불명 ②구비전승 ③후렴구의 사용 ④반복어구의 빈번한 사용 ⑤관용어구의 사용 ⑥연장체로 구성 ⑦내용이 애한으로 치우쳐 있는 점 ⑧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김쾌덕, 「속가 형성과정의 역사적 배경」,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p.54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서경별곡>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전반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어석적 연구를 비롯하여 형태론적 고찰, 발생학적 고찰 등은 수차에 걸친 연구 과정을 통해 비교적 치밀하게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작품 외적인 사회·역사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경별곡>이 고려시대의 문헌에 연행기록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작 주체 및 창작시기 등의 생성에 관한 정보가 너무 빈약하여 기왕(既往)의 연구도 대부분 작품 분석에만 의존해왔고, <서경별곡>의 주 무대라 할 수 있는 ‘서경’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看過)하여 고려시대 전반의 사회·역사적 특징을 작품에 적용해왔던 까닭이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서경별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제목에서 지방명칭을 포함하고 있어 가요 발생환경을 암시해 준다. 원래 역사와 관련이 없는 대중현상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노래가 서경이라는 특정한 지역적 환경의 산물이니만큼 서경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고에서 원용(援用)되는 역사주의적 방법과 사회학적 방법은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경별곡>을 남녀 간의 연정이나 상사의 노래라고 보는 결론 역시 재고(再考)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전해지는 <서경별곡>을 비롯한 속가들의 내용이나 성격이 남녀가 상열(相悅)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것들이 조선조에 들어 배척되었다²⁾는 사실과 궁중의 향락적(享樂的)이고 퇴영적(退嬰的)인 연향(宴享)에서 애호(愛好)된 가사였다는 점에

2) 『성종실록』 19년 4월조. 왕이 전교하기를, 종묘악의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과 같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속악(俗樂)의 <서경별곡(西京別曲)>과 같은 것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이니 매우 불가하다. 악보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곡조에 의하여 따로 가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나치게 견인된 결과이다.

허남춘은 고려속가의 특징을 논하면서 궁중악으로 쓰인 노래에 대해서는 궁중찬가(宮中讚歌)로서의 속성을 중시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속가의 ‘님’을 ‘사랑하는 님’ 만의 표상(表象)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의미가 ‘사랑과 이별,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도식적(圖式的) 답을 얻게 되고 고전시가가 가질 수 있는 함의(含意)를 축소시키게 된다고 하였다.³⁾

강명혜도 속가의 송축적 성격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정과정곡>과 <사미인곡>, <속미인곡>도 작자 미상이었다면 여인의 애가(愛歌)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모두가 시적 화자의 아니마성이라든가 애상적인 어조, 님에 대한 애절한 간원,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찾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용 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 화자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남녀의 진한 육적 사랑을 노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녀의 작품이거나 유녀, 하녀, 혹은 음란한 군신이 즐기던 노래라는 단정적인 평가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클 수밖에 없다.”⁴⁾

그는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환원되는 노래의 원래 기능이 신을 찬송하는 관습에서 연유하여 점차 왕을 송도·축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더 후대에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면서 폄하(貶下)된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서경별곡>도 표면적으로는 님을 향한 여인의 정한이 담긴 노래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왕에 대한 신의를 노래한 송축(頌祝)·연군(戀君)의 노래라는 것이다.

필자 역시 <서경별곡>은 남녀상열이 아닌 왕에 대한 송축 혹은 연군적

3) 허남춘, 「<동동>과 예악사상」,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인문과학연구소, 집문당, 1996, p.352.

4) 강명혜, 「충신연주지사의 노래-<정과정곡>」, 『고려속요·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 2002, pp.234-238.

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려사』 악지 속악 조에 왕을 송축하는 내용의 <서경>과 <대동강>⁵⁾이 있음에도 <서경별곡>이 궁중악으로 채택되었고, <정과정곡>, <사미인곡>과 같이 충신연군(忠臣戀君)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들도 표면적으로 남녀상열의 정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려는 물론, 조선조 궁중에까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 시대의 실상은 그 시대의 제도에 반영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제도 가운데서도 태조 때부터 서경중시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서경제도(分司制度·西京經營)를 <서경별곡>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통해 서경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서경은 고려 왕실의 필요에 따라 행해진 서경제도를 통해 고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경영되어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중기까지 행해진 왕들의 서경행차는 서경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관련한 것으로 고려 왕실의 지지 아래 서경은 개경과 대등한 위상(位相)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고 서경세력은 왕실과 관계를 통해 정치적 집단으로 부상(浮上)할 수 있었다.

떠나는 님을 만류하며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호소하는 <서경별곡> 주인공의 모습은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에서 나타는 화자의 모습과 유사하다. 필자는 고려 왕실과 서경의 관계를 살펴 왕실의 지지를 잃게 된 서

5) <서경>과 <대동강>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연대 미상의 고려가요이다. 원사(原詞)는 전하지 않으며 내용과 내력이 『고려사』 제71권 악지 속악 조에 전하고 있다. 먼저 <서경>은 서경의 백성들이 예의를 배워 임금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받드는 의리를 알아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내용은 군장의 가득한 인애와 은혜는 초목에까지 미쳐 꺾인 버들가지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찬가계통의 노래이다. 그리고 <대동강>은 주 무왕이 은나라의 태사였던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는데, 기자는 여덟 조목의 가르침을 배풀어 예의를 숭상하는 풍속을 일으키니 조정과 민간에 일이 없었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대동강을 황하에, 영명령을 숭산에 각각 비유해서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안녕을 빌었다. 이 노래는 고려로 들어온 이후에 지은 것이니 기록으로 보아 임금을 송축하는 노래였던 것 같다. 따라서 <서경별곡>과는 내용상의 거리가 있다.

경인들이 왕에게 다시 돌아봐주기를 호소하는 상황에 텍스트를 배치하여, 작품 속에 드러나는 서경인들의 의식과 삶의 모습을 살피는 동시에 작품이 가지는 연군가적(戀君歌的) 성격을 구명(究明)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금까지 남녀상열지사라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서경별곡>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과 이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순서로 II장에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통해 서경과 고려 왕실의 관계를 살핀 다음 <서경별곡> 텍스트와 연관 짓고, 노래의 창작시기를 인종(仁宗)대 서경반란(西京叛亂)이 일어난 때부터 반란이 평정(平定)된 시기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어서 작품의 작자계층(作者階層)에 대해 논의하고 III장에서는 앞서 추정된 시기의 사회상황과 관련지어 <서경별곡>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흔히 고전시가 연구에서 부딪히는 형식적인 문제라든지 난해한 어석 문제 등은 논외로 한다. 다만 어석의 문제는 어떠한 문학적 접근이라도 넘어야 할 과제인 만큼, 기존의 설 가운데 하나를 취하겠으며, 그 선택은 작품의 문학적 의미를 고려하여 행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서경별곡>은 작품만 전해올 뿐, 생성배경 및 경위(經緯) 등을 전해주는 문헌 기록은 없고 조선조 때 이 노래를 궁중에서 어떤 시각으로 정의를 내리고 정리하였는지 정도의 기록만 있을 뿐이다. 사료(史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경별곡>에 대한 논의는 어휘해석과 구성, 창작연대, 작자층, 노래의 성격, 비교문학적 측면 등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주로 논란이 되었던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어휘해석에 관한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의문점이 남아있기는 하나 대체로 해결된 듯하다. 어석상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네가시럼난디몰라셔’, 부분으로 양주동과 김형규는 ‘네가 시름이 난지 몰라셔’⁶⁾, 전규태는 ‘네 아내가 음란한 마음이 난지 몰라셔’⁷⁾, 서재극은 ‘네 따위가 주제넘은 줄 모르고서’⁸⁾ 라고 보는 등 여러 견해들이 난립(亂立)해 있다. 그 가운데 ‘네 각시가 음란하지’, ‘네 각시가 과욕한지’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定說)로 되어있으나 시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노래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서경별곡>은 시상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과 <정석가>의 마지막 연과 동일한 가사가 등장한다는 점, 시적화자의 정서와 어조가 급격히 전환된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어 서로 독립적인 노래들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는 합가설(合歌說)이 나오게 되었다.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두 노래 합가설, 세 노래 합가설, 네 노래 합가설, 그 외 『고려사』악지(樂志)에 보이는 <서경>과 <대동강>의 합성이라 보는 경우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세 노래 합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먼저 두 노래 합가설을 주장한 연구자로는 박노준과 신은경 등이 있다. 박노준은 <서경별곡>의 화자를 성급한 개성을 지닌 여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님을 만류해보지만 님이 떠나는 현장에 직면하자 걱정적 어조로 분노와 원망을 토해낸다고 하였다. 1연과 3연을 하나의 노래로 묶으며, 두 단락 내용이 여유 없이 고조된 흥분의 연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래 전체에 유연성(柔軟性)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구슬노래를 삽입한 것이라고 보았다.⁹⁾ 신은경 역시 서경사람인 화자가 대동강 가에서 님과 이별하며 부른

6)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pp.299-230.

7) 전규태, 「<서경별곡>연구」,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pp.86-87.

8) 서재극, 「<서경별곡>의 “네가시럼난디”재고」, 『어문학』 제27집, 한국어문학회, 1972, p.123.

9) 박노준, 「<서경별곡>의 구조와 화자의 태도」,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노래로, 1연과 3연이 한 노래이고 2연이 삽입된 두 노래의 합성으로 보았다.¹⁰⁾

세 노래 합가설을 주장한 연구자로는 강명혜, 김학성, 여중동, 유효석 등이 있다. 이들 중 강명혜는 1연의 '서경'과 2연의 '구슬', 3연의 '대동강'이라는 주제가 너무도 확연히 구분되기에 3연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경'은 화자의 삶의 공간이고 '대동강'은 그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서 이질적이고 상반되므로 2연(구슬 연)이 이 공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¹¹⁾ 여중동은 색다른 시각에서 <서경별곡>의 화자를 복수창자인 남녀사이의 대화체(對話體) 노래로 보고 그 구성적 틀을 전체 3연 안에서 여사-남사-여사(3단락)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연은 우는 노래, 2연은 울음을 달래는 노래, 3연은 발버둥 치면서 허탈에 빠지는 노래라 하였다.¹²⁾

또한 김학성은 <서경별곡>의 1, 2, 3연이 각각 이질적인 미의식(美意識) 유형을 보임으로써 내용상 혹은 형식상 서로 다른 세 민요의 합가일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세 연은 우아(優雅)를 심층으로 하고, 비극(悲劇)을 표층구조(表層構造)로 하는 공통적인 미의식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고 하였다.¹³⁾

『고려사』 악지에 보이는 <서경>과 <대동강>의 합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¹⁴⁾ 조동일은 <서경별곡>의

pp.273-274.

10) 신은경,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삽입가요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p.216.

11) 강명혜, 「송죽·서언의 노래 <서경별곡>」, 『고려속요·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 2002, p.164.

12) 여중동, 『한국문학사』, 형설출판사, 1975, p.91.

13)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1980, pp.132-133.

14) 『고려사』 악지 속악조에 수록된 <서경>과 <대동강>은 <서경별곡>과 그 소재는 같으나 송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별의 정한을 읊은 <서경별곡>과는 별개의 노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대목이 “서경이”, “대동강”하고 이어진다는 점과 같은 노래의 사실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경별곡>과 악지에 수록된 <서경>·<대동강>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⁵⁾

세 번째로는 작품의 창작시기와 작자 추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창작시기에 관해서는 고려숙가의 대부분이 고려 후기 원나라 지배 하에서 왕실과 권문세족(權門勢族)들에 의해 향유(享有)되었던 문학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서경별곡>도 이 시기에 창작된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서경별곡>을 비롯한 속가들이 통설처럼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어떤 부분은 현재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고려 전·중기에 이미 민간에 정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기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다.

서수생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¹⁶⁾을 통하여 태조 이후 써왔던 ‘서경’이라는 명칭을 광종(光宗) 11년에 서도로 개칭(改稱)하였으므로 광종 이전에 형성된 노래라 하였고¹⁷⁾, 북한연구자인 정홍교는 <서경별곡> 1연의 ‘닷곤더 쇼성경(신축한 작은 서울)’이라는 가사를 통해 평양을 개진(改建)하고 ‘서경’이라 부르게 된 이후 얼마 오래지 않은 시기로 적어도 10세기말에서 11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⁸⁾ 김창룡은 『고려사』 문헌 한도 내에서 ‘서경’이라는 명칭이 쓰이던 기간과 ‘대동강’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인 시기를 고찰하였다. 그에 따라 <서경별곡>의 창작시기를 대동강이라는 명칭이 제일 먼저 나타난 정종(靖宗) 7년(1041년) 이후로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p.148.

16) 『동국여지승람』 제50권 평양조. 平壤府……高麗太祖元年 爲大都護府 尋爲西京 光宗十一年 改稱西都 成宗十四年 稱西京留守 元宗十年……忠烈王十六年 遂復爲西京留守 恭愍王十八年 設萬戶府 後改爲平壤府.

17) 서수생, 「익재소악부의 연구」,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p.209.

18) 정홍교, 『고려시가유산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142.

추정하였는데, 이는 ‘대동강’이라는 명칭이 가사 내용 안에 쓰였다면 이미 ‘대동강’이란 말이 보편화된 다음에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이다.¹⁹⁾

김택규는 ‘최초의 한문체’ 별곡인 <한림별곡>의 제작연대는 고려 고종(高宗) 3년(1216)으로 볼 수 있고, 송악의 전래시기를 예종(睿宗)대까지로 보아 민요합성에 의한 별곡·별사 생성시기의 상한(上限)을 예종대(1106~1112)로 볼 수 있으므로 국문별곡인 <청산별곡>과 <서경별곡>의 창작시기를 예종대까지 소급(遡及)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김택규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계양은 예종 이후 어느 혼란한 때에 사랑하는 임을 불가피하게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예종대에 전래한 송악(宋樂)의 영향 하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극에 달했던 고종대로 추정하였다.²¹⁾

임주탁은 고려숙가의 생성·창작시기를 정치·사회·문화·역사적 측면에서 생성문맥과 실상을 밝히기에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서경별곡>이 강화천도기(江華遷都期)에 생성되었다고 하였다.²²⁾ 그는 <서경별곡>을 전반부(8장)와 후반부(6장)으로 나누고 각각은 필현보(畢賢甫)·홍복원(洪福源)의 반란과 최탄(崔坦)·한신(韓信)의 반란을 계기로 생성되었고, 한편의 작품으로 구성된 시기는 최탄의 반란으로 동녕부(東寧府)로 분리·이탈해 간 자비령(慈悲嶺) 이북 지역이 고려로 재귀속(再歸屬) 되는 충렬왕(忠烈王) 16년 무렵이라 추정하였다. 즉, 분리 이탈된 지역을 재통합하는 차원에서 해당 지역인이 제작한 가악 래퍼토리로 수용되었으리라는 것이다.

19) 김창룡, 「<서경별곡> 연구」, 연세대학교학연구원, 『동방학지』 제69집,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90, p.259.

20) 김택규, 「별곡의 구조」,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p.303.

21) 이계양, 「<서경별곡>의 시간현상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15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p.101.

22) 임주탁, 「<서경별곡>의 텍스트독법과 생성문맥」, 『한국민족문화』 제19·20집,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p.117.

그리고 이성주는 고려속가를 문학사회학(文學社會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고려시대가 국제간의 교역(交易)이 활발했던 시대였던 것을 바탕으로 <서경별곡>을 고려 말 서경에 머물렀던 외국상인(원의 치하에 있던 상인인 색목인)과 유녀(遊女)의 이별노래라고 보고 창작연대를 충렬왕(忠烈王)대 이후~공민왕(恭愍王)대까지로 추정하였다.²³⁾ 충렬왕대는 원과의 왕실결혼으로 인해 원의 퇴폐적(頹廢的)인 풍속이 전해졌던 시기로, 유녀들의 문란함은 물론이거니와 성적인 문란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사회상황을 바탕으로 노래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작자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속가가 대개 민간에서 유행하던 민요가 궁중악으로 수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서경별곡> 또한 민요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일차적 작자를 민중으로 보는 데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러나 박혜숙은 같은 민중이라 하더라도 작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서를 드러내기 마련이므로 <서경별곡>이 민중적 정조(情調)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활과 정서는 봉건시대의 민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농민의 정서와는 다르다고 하였다.²⁴⁾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작자를 민중 가운데서도 도시 평민층 여성이거나 직업적 예능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였다.

서수생²⁵⁾과 이성주²⁶⁾는 <서경별곡>의 작자를 유녀(遊女)로 보았는데, 서수생이 유녀이지만 하나의 님에게 애정을 쏟아 고향과 길쌈베를 버리고라도 님을 따르겠다는 일편단심 굳은 정절(貞節)을 가진 춘향형 유녀로 본데 반해 이성주는 고려시대 상권(商圈)을 중심으로 형성된 환락가(歡樂街)의

23) 이성주, 『증보 고려시대의 가요』, 민속원, 1998, pp.188-189.

24) 박혜숙, 「<서경별곡> 연구의 쟁점」, 『한국고전시가작품론 I』, 집문당, 2002, pp.298-299.

25) 서수생, 앞의 책, p.209.

26) 이성주, 앞의 책, pp.188-189.

유녀로 외국상인을 사랑한, 성의 문란함을 기탄없이 받아들이는 여인으로 보았다.

강명혜는 고려시대의 역대 왕들이 태조의 유훈(遺訓)을 받들어 근신(謹愼)을 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경>에 행차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서경에 있던 신하(백성)가 서경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왕에 대한 석별(惜別)의 정과 충성심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²⁷⁾

이상 <서경별곡>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경별곡> 연구에 있어 다각적(多角的)인 많은 연구와 각종 국문학 개론이나 국문학사 등 제반(諸般) 저서(著書)에도 <서경별곡>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있어온 것 또한 사실이나 아직도 창작연대와 창작배경의 규명(糾明)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설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노래가 나타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며 그것이 전제가 될 때 작품의 올바른 이해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7) 강명혜, 앞의 책, pp.177-178.

Ⅱ.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작자층

문학은 사회와 역사를 떠나서는 생성될 수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는 하나의 유기체(有機體)이다. 이는 문학을 영위(營爲)하는 인간이 사회와 역사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그 속에서 전체적인 것을 획득하므로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나 역사와 별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학에서의 모든 대상물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물과 유추적(類推的) 관계를 가지며, 제도·습관·사상·정서·행위·인품·문학을 창출하는 지혜 등 그 모든 것이 사회나 역사와 관계 맺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의 문학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이 탄생된 시대의 사회·역사적 특성과 관련지어 파악해야 한다.²⁸⁾ 고려속가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서경별곡> 또한 고려시대 서경에서 널리 불리어진 노래인 만큼 그 지역이 가지는 사회·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서경별곡>이 다른 고려속가들과 달리 반드시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함은 김윤식도 지적한 바 있다.²⁹⁾

고려의 서경은 왕권강화를 위한 태조의 의도에 따라 중시된 곳이며 개경과의 특수한 세력균형(勢力均衡) 관계 위에 놓인 곳이다.³⁰⁾ 따라서 대동강

28) 김쾌덕, 앞의 책, pp.47-51.

29) 제 1단락에서 우선 <서경>, <소성경>이 함께 평양이라는 구체적 지명이며, 2단락은 <정석가>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어서 그 동계적 질서유추가 가능하며, 3단락에서는 대동강이 바야흐로 노출되어 있다. 이 몇 가지 거점(據點)은 실상 이 작품의 무게를 더욱 크게 한 것이어서 역사성이 외부에서 작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는 <가시리>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이 작품에 확실성(確實性)을 부여케 한다. 따라서 <서경별곡>은 이러한 역사성의 압력을 무시하고 <가시리>처럼 멋대로 평설할 처지가 못 된다. 적어도 <서경별곡>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서경의 군사적·정치적 중요성과 <소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배경을 살펴야 하리라.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pp.58-62.

이 가로놓인 서경이 등장하는 <서경별곡>은 이러한 배경 속에 놓여야 한다. 서경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연계(連繫)하여 작품을 살펴보면 <서경별곡>의 별리문제(別離問題)는 떠나는 주체가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의 역학관계(力學關係)에 있었음을 말해주며 그 주체는 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서경별곡>이 창작된 그 사회·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여 창작시기를 추정하고 아울러 작품의 작자층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악지(樂志) 소재 <서경>과 <대동강>이 있었음에도 <서경별곡>이 궁중악으로 쓰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두 노래와 상통하는 성격을 지녔으리라 가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하여 『고려사』를 통해 서경에 대해 살핀 결과, 서경은 고구려 이래 풍수·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면에서 요충지였고, 개경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경이 부도(副都)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태조 이래 역대 왕들의 적극적인 서경중시정책(西京重視政策)에 인한 것으로, 서경에 사는 지역인들은 고향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태조는 즉위 초부터 서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태조에 의해 적극 경영된 서경은 왕실과의 관계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세력을 키워나갔다. 태조는 사후에도 훈요 10조를 통해 후대의 왕들에게 서경에 순행(巡幸)할 것을 강조하여 서경은 역대 왕들에 의해서도 중시되었고, 그로 인해 그 위상은 날로 더하여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종종 나올 정도였으니 이는 서경의 위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먼저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제 5조를 살펴보자.

30) 원래 왕권이 쇠약하였던 고려 왕실에서 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을 상호견제(相互牽制)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편(方便)이었음을……왕실에서는 개경세력의 독주(獨走)에서 빚어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서경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현강, 「고려서경고」, 『역사학보』 제 35·36집, 역사학회, 1967, p.169.

“짐(朕)이 삼한(三韓) 산천의 음우(陰佑)를 힘입어 썌 대업(大業)을 성취(成就)하였다. 서경(西京)은 수덕(水德)이 순조(順調)로와서 우리나라 지맥(地脈)의 근본(根本)이 되며 대업(大業)을 만대(萬代)에 전할 땅인지라 마땅히 사중월(四仲月)에는 순주(巡駐)하여 백일(白日)이 지나도록 머물러 안녕(安寧)을 이루도록 하라”³¹⁾

그리고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지속적으로 보인다.

겨울 12월 계미일에 왕이 서경으로 가서 친히 재제(齋祭)를 치르고 각 주군과 진(鎭)들을 순행하였다 -태조 병술 9년(926)

봄에 서경의 왕성(王城)을 쌓았다 -정종 정미 2년(947), 처음에 도참(예언)을 신빙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결심하고 장정들을 징발하여 시종 권직(權直)으로 하여금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정종 기유 4년(949)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로, 서경(西京)을 서도(西都)로 고치었다 -광종 경신 11년(960)

겨울 10월 갑자일에 왕이 서도(西都)에 가서 교서를 내렸다 -성종 경인 9년(990)
계미일에 서경(西京)을 호경(鎬京)으로 개칭하였다 -목종 무술 원년(998), 겨울 10월에 왕이 호경에 가서 재제(齋祭)를 치르고 죄수들을 특사하였으며 늙은이들을 위문하고 물품을 주었다. 양경(개경과 호경) 제 진(鎭)의 군사들 중 연령 80 이상자로서 관직이 있는 자는 품계를 올리고 관직이 없는 자는 배용 교위(陪戎校尉)로 임명하였으며 왕을 수행한 자들로서 8품 이하의 관리와 군인들은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목종 기해 2년(999)

서경 목멧사(木覓祠)의 소상을 만들고 중광사(重光寺)를 창건하였다 -현종 임자 3년(1012)

봄 정월 초하루 을미일에 사신을 서경에 파견하여 성용전(聖容殿)에서 태조를 제

31) 『고려사』 제2권 세가2 태조2. 基五條,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西京水德順調爲我國地脈之根本大業萬代之地宜當四仲巡駐留過百日以致安寧.

사하였는바 태조의 초상을 다시 수장하였기 때문이었다 -현종 무오 9년(1018)

겨울 10월에 왕이 호경(鎬京-西京)에 갔다, 신사일에 왕이 대동강(大同江)에 이르니 서경 유수사 참지정사 황보영(皇甫穎)이 강가에 나와서 영접하였다 -정종 신사 7년(1041)

병술일에 왕이 서경에 갔다 -문종 계사 7년(1053)

병오일에 왕이 서경(西京)에 갔다, 신해일에 왕이 대동강에 누선(樓船)을 띄우고 측근 신하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선종 정묘 4년(1087)

경술일에 왕이 서경에 갔다, 정사일에 왕이 대동강에 이르러 배를 타고 태자와 호종 관료 및 서경의 문무 관원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이날 수영 잡기를 구경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파하고 장락전(長樂殿)으로 돌아왔다 -숙종 임오 7년(1102)

을해일에 왕이 서경에 도착하였다, 12월 갑신일에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장락전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병술일에 왕이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주연을 배설하였다 -예종 정해 2년(1107)

을해일에 왕이 서경(西京)에 갔다, 경진일에 왕이 태조의 진전(眞殿-화상을 둔 곳)에 참배하였다, 갑진일에 서경(西京)의 요승(妖僧) 묘청(妙淸)과 일관(日官) 백수한(白壽翰) 등이 왕에게 감언이설을 하여 상안전(常安殿)에 관정(灌頂) 도량을 베풀었다, 무신일에 왕이 왕비와 두 공주를 데리고 흥복사(興福寺)에 갔다, 이날 재추(宰樞) 근신과 더불어 대동강 누선(樓船)을 타고 강 중류에서 연회를 베풀어 즐겁게 놀았다 -인종 정미 5년(1127)

을유일에 왕이 서경에 도착하였다, 병술일에 왕이 태조(太祖)의 진전(眞殿-화상을 둔 곳)에 참배하였다 -의종 무자 22년(1168)

위의 사료들을 통해서 서경에는 동명왕 및 태조, 목멱묘(木覓廟)가 있으며, 목멱사(木覓祠) 신상 등과 사당이 구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역대 왕들은 서경에 행차하여 각종 사당에 채(齋)를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대동강 뱃놀이도 하면서 서경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왕들의 서경경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였는데, 서경은 왕실과 밀착되었을 때는 그 세력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왕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그 힘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왕실의 지지를 받아 정종(定宗)·목종(穆宗)대에는 서경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지만 현종(顯宗)이래로 개경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이 편성(編成)됨에 따라 지방출신이 중앙에 진출하기는 점차 어려워졌다. 게다가 서경인들은 주로 서경의 관부(官府)나 분사(分司)에 다수 기용(起用)되었으므로 이것이 오히려 중앙정계진출에 족쇄로 작용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불만은 갈수록 누적되었고, 왕들의 잦은 순행(巡行)과 서경에 대한 관심은 서경인들로 하여금 정권 장악의 욕심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망은 어디까지나 왕실과의 결합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것이었고 개경세력이 강대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안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처럼 서경은 태조 이래로 고려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여 왔다. 갑작스런 님의 변심으로 인해 이별이 전개되는 <서경별곡>의 문맥은 서경세력과 결탁하여 서경에 대해 애착을 보이던 왕이 서경세력과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해 결별하게 되는 역사적 시점에 놓이게 된다.

이 때 왕실을 지지하는 서경세력에 의해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다시 돌아봐주기를 호소하는 노래가 불리게 되는데, 필자는 이 시기를 인종(仁宗)대의 서경반란, 즉 묘청의 반란이 일어난 시기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종대로 보는 구체적 근거는 II-2절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먼저 태조를 비롯한 역대 왕들과 서경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서경과 왕실과의 관계

평양은 고조선의 왕도(王都)였을 뿐만 아니라 후에 고구려의 수도로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 특히 태조가 서경경영³²⁾에 진력(盡力)한 이래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입장에서 서경은 고려왕조에서 중시된 것은 사실이다. 태조가 고도인 평양이 황폐한 지 오래되어 변인(蕃人)들의 사냥처가 되고 변읍(邊邑)이 노략질당하는 것을 우려하여 평양대도호부(平壤大都護府)를 설치하여 두 사람을 보내어 지키게 하고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참좌 4, 5명을 두었다는 『고려사』의 기록³³⁾은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서경경영은 태조 원년에(918)에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조의 조치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이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평양이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그리고 양차(兩次)에 걸쳐 사민(徙民)이 단행되었는데 918년에 황주, 봉주 등의 팔호를, 922년에는 대승 박질영, 김행파의 부형자제 및 제 군현의 양가자제를 서경에 사민시켰다. 922년의 사민과 함께 서경관제가 정비되는데, 서경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관부로 낭관(廊官)을 설치하고, 시중(侍中) 1인, 시랑(侍郎) 2인, 낭중(郎中) 2인, 상사(上舍) 1인, 사(史) 10인의 원리를 두었으며, 그 아래 아관(衙官)·병부(兵府)·납화부(納貨府)·진각성(珍閣省)·내천부(內泉府) 등 서경의 행정실무를 분담하는 기관이 마련되었다.³⁴⁾ 이렇

32) 실질적인 통치권력이 왕실에서 무인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왕의 서경거동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인정권 때는 왕의 운명이 무인의 수중에 달렸으며, 원 지배 하에서는 그 운명이 원 황실에 의해 결정되다시피 하였고, 왕의 독자적인 통치능력의 상실과 더불어 자연이 서경경영의 필요성도 없어지게 되므로 본고에서는 인종대까지의 서경경영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3) 『고려사』 제77권 백관지(외직) 서경유수관 조. 太祖元年置平壤大都護府遣重人守之置參佐四, 五人.

34) 『고려사』 제77권 백관지(외직) 서경유수관 조. 太祖五年置廊官[廊者官號方言曹設]侍中一人侍郎二人郎中二人上舍一人史十人衙官[衙亦官名方言豪幕]具壇一人卿二人監一人祭一

게 설치된 922년의 서경행정기구는 고려 분사제도(分司制度)의 시초로서 주목될 만하다. 태조 때에 마련된 서경의 행정기구는 그 뒤 다소의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995년(성종 14)의 관제개편 때까지 존속되었다. 또한 930년(태조13년)에는 학교가 설치되고 서경의 방어시설인 내성과 외성이 각각 919년(태조2), 923년(태조6)에 축조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태조의 서경우대 정책의 일단이었고 당시의 수도인 개경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통일 신라 이래 그대로 방치되어있던 서경은 이미 태조 대에 문물제도 전반에 걸쳐 양경(兩京)체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태조대의 서경에 대한 배려는 그의 재임 시 10회의 순행에서도 보인다. 그는 고려왕들 중에 가장 많은 순행을 하였고 그의 붕어(崩御) 후에도 훈요 10조를 통해서나 도참설(圖讖說)³⁵⁾을 내세워서 서경순행을 강조한다. 이것이 곧 역대 왕들에게 서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한 것이다. 이렇듯 태조가 즉위와 더불어 서경경영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인(蕃人)들에 의한 침략을 막고 번병을 굳게 하려는 국방상의 이유에 있었다. 당시 남으로 강력한 후백제와 대립상태에 있었고 북으로는 북방민족에 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고토(故土) 회복의 상징적 의미로 전략상 요지로 중시되었던 것이다.

人理決一人評察一人史一人 兵部令具壇一人卿一人大舍一人史二人納貨府卿一人大舍一人史二人珍閣省卿一人大舍二人史二人內泉府令具壇一人卿二人大舍二人史二人.

35)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과 도참설(圖讖說)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중 도참설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의 고구려였으며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설은 원래부터 다분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풍수지리설은 도참설과 결부되어 서로 혼합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또 여기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의 형이상학적인 이론과 점성적인 천문학 사상 등의 신비성(神秘性)이 첨가되어 더욱 설득력을 더하게 되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심해져서 신비적인 해석과宿命론적인 예고의 방식을 더하여 고려의 역대왕실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특히 천도문제라든가 지방행정체계의 변동 내지 국경방비문제 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었다.

태조의 적극적인 서경경영은 처음에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주목된 듯 하지만 얼마 뒤부터는 국내 정치상의 필요성에 의해 강조되었다. 신라 말기부터는 호족들이 각 지방에 강력한 세력기반을 지니고 등장하였으므로 고려왕실에서는 이들과 연합함으로써만 왕권을 지탱하여 나갈 수가 있었다.³⁶⁾ 그러나 태조는 호족들의 중압(重壓)을 견디기 어려웠고 그의 세력기반인 송악(松嶽)에서조차 세력을 단호하게 제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호족들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태조는 서경경영을 통하여 자기의 절대적 세력으로 육성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 호족들 또는 개경에 정착한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태조에 이어 혜종(惠宗)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는 태조의 외척으로 당시 개경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던 왕규(王規)의 위세에 눌려 늘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혜종이 재위 2년 4개월 만에 죽고 왕제 소(昭)가 왕식렴(王式廉)으로 대표되는 서경세력과 결탁하여 왕규 일파를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정종(定宗)이다. 정종대는 서경세력의 기반이 계속 신장되는 시기였다. 국초 대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왕실에 의해서 육성되었던 서경세력은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정종을 추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

36) 태조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기반과 세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는데, 후비책봉책(后妃冊封策)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즉위하기 이전에 혼인한 신혜왕후 유씨와 장화왕후 오씨를 제외한 27명이나 되는 후비들과의 혼인은 모두 정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은 대광 김행파의 딸로 태조가 자신의 집에 이틀 밤을 머무는 동안 두 딸로 하여금 각기 하룻밤씩 모시게 하였다. 그러나 태조가 그 후 다시 오지 않아 두 딸이 모두 출가하여 승려가 되니, 태조가 불쌍히 여겨 서경에 명하여 성중에 대·소서원의 양사(兩寺)를 짓고 토지를 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거주토록 하였다. 서경은 태조가 개경과 함께 또 다른 세력의 근거지로 삼은 곳으로 행파와 그의 가족들을 서경으로 사민시킨 의도나 행파의 집에 이틀 밤을 지내면서 그의 딸을 받아들인 점으로 미루어 신임하던 행파를 후비책봉책을 통해 포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제88권 열전1 대서원·소서원부인전 참조.

할을 한 결과 왕실과 밀착되어 중앙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왕위에 오른 정종은 곧 지리도참설(地理圖讖說)에 의거하여 천도를 계획하여 서경에 왕성과 궁궐을 만들었다. 정종대 서경천도와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2년 춘정월에 서경의 왕성을 쌓았다.³⁷⁾

4년 3월 병진일에 왕의 병이 위독하니 동복 아우 소(昭)를 불러 왕위를 넘겨 주었다. 정종은 처음에 도참을 믿고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결의하고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 권직으로 하여금 궁궐을 짓게 하였다. 이때의 부역이 한이 없었고 또한 개경 민호를 뽑아서 서경을 채웠다. 이에 백성들이 불만을 품어 원성이 계속 일어났다. 왕이 죽게 되자 부역을 나갔던 사람들이 듣고 기뻐 뛰었다.³⁸⁾

정종은 도참을 잘못 믿어 천도를 결의했다. 또한 천성이 강의하여 고집을 고치지 않으며 징수를 가혹하게 하고 공사를 일으켜 사람들을 고달프게 했다. ...³⁹⁾

그러나 정종에게 있어 서경천도는 도참설에 의하였기보다는 당시 복잡했던 정치적 현실의 타개책이었다. 그 이유는 왕규 일파가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개경 정부 내에는 다수의 유력한 호족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었고, 개경을 수도로 삼고 있는 한 정종은 불안하여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식렴과 정종은 서경천도를 이루지 못한 채 정종 4년 정월과 3월에 차례대로 죽었다.

37) 『고려사』 제2권 세가 정종 2년 춘정월. 春築西京王城.

38) 『고려사』 제2권 세가 정종 4년 3월. 三月丙辰王病篤召母弟昭內禪移御帝釋院薨在位四年壽二十七王性好佛多畏初以圖讖決議移都西京徵發丁夫令侍中權直就營宮闕勞役夫已息又抽開京民戶以實之群情不服怨讟胥與及薨役夫聞而喜躍.

39) 『고려사』 제93권 열전6 최승로. 誤信圖讖決議遷都又天性剛毅固執不移暴徵作役勞動人夫雖上慮爲然乃群情不服怨讟由是而興災應速於影響未及西遷永辭南面誠可痛也.

광종(光宗)은 대체로 그의 치세를 통하여 서경경영에 무관심하였고 오히려 냉담하였다. 긴 재위 동안 서경에 행차한 기록이 없음은 그가 서경을 중시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더구나 광종 11년 3월에 개경을 황도(皇都)로, 서경을 서도(西都)로 삼음으로써 개경이 황제 거주지 수도임을 천명하였고 상대적으로 서경(서도)을 낮추었다. 이것은 정종대에 서경세력이 중앙정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결과적으로 개경세력 못지않게 왕권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한 사후대책의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왕건에 의하여 육성되고 정종 때에 강대해진 서경세력이 광종에 의해 거세됨으로써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의 힘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에 따라 두 세력은 왕권아래에서 상호견제(相互牽制)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⁴⁰⁾

성종은 즉위 초에는 거의 서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재위 9년 9월에 교서를 내려 태조의 유훈을 받들어 서도에 나아가 조니(祖彌)의 구규(舊規)를 행하고 신령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 교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종의 서경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성종이 경종의 아들인 목종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는 데 최량, 최승로 등 경주세력의 힘이 컸으므로 친 신라적인 노선을 추구했기 때문이다.⁴¹⁾ 최승로는 그의 봉사(奉事)에서 정종이 지나치게 서경경영에 애착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서경천도계획을 실천한 사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를 정종의 가장 큰 실정으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승로의 정치적 견해가 성종의 정책면에 반영되었던 것이고 최승로 사후 1년 뒤 성종이 서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다.⁴²⁾ 그리하여 10월(990년)에는 서도에 행차해, 우순(虞舜)이 태악(泰嶽)을 순행하자 제후가 몰려들고 당황이 낙양에 행차하자 사해가 소생한 예를 들면서 10년 동안 서순(西巡)하지 못하다가

40) 하현강, 앞의 논문, p.155.

41) 김창현, 「고려초기 정국과 서경」, 『역사연구』 제80집, 한국사학회, 2005, p.50.

42) 하현강, 앞의 논문, p.159.

조선(祖先)의 궤적과 시령에 따라 행차하니 백성이 환호했다면서 중흥의 운수를 경축하려 한다⁴³⁾고 했다. 서경에 순력하지 못해온 데 대해 반성하고 행차해 환대를 받았던 것인데, 10년 10월에도 경유지 부로의 환호를 들으며 서도에 행차했다.

목종은 성종(成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곧 서경경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목종때 행해진 일들은 대개 모후인 천추태후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다. 목종 원년 7월에 ‘서경’이 ‘호경(鎬京)⁴⁴⁾’으로 바뀌었는데, ‘서경유수’가 ‘호경’으로 바뀐 것이었다.⁴⁵⁾ 이는 호경이 유수경이 아니라 개경과 대등한 도읍이 된 것을 의미하니 관부도 유수관에서 태조 때의 낭관 등으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목종은 2년 10월, 7년 11월, 10년 10월, 11년 10월에 모두 4차례 호경에 행차했으며, 그 때마다 재제(齋祭)를 지냈고 중종 신지(神祇)에 훈호(勳號)를 더했다.

목종이 강조(康兆)의 난에 폐위되고 난후 현종(顯宗)이 즉위하게 되는데 현종은 즉위 후 호경을 서경유수로 격하했다.⁴⁶⁾ 호경을 서경유수로 지위를

43) 『고려사』 성종 9년 10월. 冬十月甲子幸西都教曰虞舜巡泰嶽之年諸侯磨至唐皇幸洛陽之日四海咸蘇是以遐開展義之風大學省方之禮緬徵古列屬在時行朕纂御靈圖思崇寶業自卽眞於南面十換炎涼未展禮於西巡再思行邁遵祖先之軌順時令之宜親省關河歷觀黎庶農桑豐稔人物阜寧其沿路縣吏州司田夫野老權呼路左拜舞駕前競陳執贄之儀共表來蘇之意是穹蒼之所佑非冲眇之敢當合施大賚之仁俾慶中興之運扈從臣僚及.

44) ‘호경’은 주의 수도 명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왕은 호경을 건설하고 은을 정벌해 주의 시대를 열었고, 주공은 낙읍에 부도로서 동도를 건설했다. 호경은 ‘중주’로 낙읍은 ‘성주’로 불렸다. 호경의 주가 멸망하자 주 왕실을 낙읍으로 옮겨 동주를 열었지만 춘추전국이 도래했다. 목종이 서경을 호경이라 개칭한 것은 주의 근원지가 호경이었듯이 고려의 근원지도 서경이라는 점이 강조된 것이고, 개경은 낙읍(낙양)에 비유된 것이었다. 그러하니 당연히 호경 중시정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호경(서경)이 낙읍에 비견되는 개경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호경에 자주 행차하거나 천도해야 중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45) 『고려사』 제3권 목종 원년 7월, 『고려사』 제58권 지리지3 서경유수관.

46) 『고려사』 지리지에는 목종 때 호경이 문종 16년에 다시 서경유수관을 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고려사』 현종 세가에는 현종 원년에 “거란병이 서경에 이르러다”를 시작으로 서경이 자주 보이지 호경은 보이지 않는다. 현종이 즉위하면서 호경이 서경(서경유수)로 개칭되었다고 판단된다. 김창현, 앞의 논문, p.68.

격하시키긴 했지만 전대와 마찬가지로 서경중시정책을 펴게 되는데 현종이 서경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거란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 거란의 침입 당시 호경을 우대했던 목종이 살해되고, 또 호경에서 서경으로 격하되고 서북면도순검사(西北面都巡檢使)를 지냈던 강조가 패배한 상황에서 서경인들은 거란과 싸워 현종에 충성하기를 망설였다. 지채문이 서경에 달려가 수습하고 신사에서 회오리바람까지 불어주어 서경성은 겨우 함락을 면했다.⁴⁷⁾ 거란군의 침입과 서경세력의 방관으로 궁지에 몰리었던 현종은 가까스로 난국을 수습한 후 현종2년 5월에 평양·목덕·교연·도지암·동명왕 등의 신에게 훈호(勳號)를 더하고 황성을 쌓는 등의 서경우대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는 서경인의 이반을 우려한 민심수습책이었다. 즉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서경세력을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던 것이다.⁴⁸⁾

게다가 정변으로 즉위한 현종이기에 고려 정통성(正統性)을 상징하는 서경을 홀대할 수는 없었고, 고구려 계승을 부르짖은 태조의 손자이기에 서경을 우대하는 것이 자신의 정통성 과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현종의 적극적인 서경경영의 결과 취약한 왕권을 소생(蘇生)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되는데 즉, 현종 6년(1015)에 정권을 장악하여 왕권을 위협하던 무신 김훈(金訓), 최질(崔質) 등을 제거하는 데 서경세력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인종(仁宗)은 7회의 서경순행을 하여 태조 다음으로 많은 행차를 하였고 태조 이래 어느 왕들보다 서경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인종의 적극적인 서경중시 정책으로 인하여 정지상(鄭知常)을 비롯한 묘청(妙淸)·백수한(白壽翰) 등은 인종의 측근에서 지리도참설을 근거로 한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는

47) 『고려사』 제94권, 지채문전, 『고려사절요』 제3권 현종 원년 12월.

48) 하현강, 앞의 논문, p.167.

데 인종은 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했고 묘청과 백수한을 크게 신임하였다. 그들은 왕을 움직여 서경에 대화궁을 짓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결국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묘청이 나서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고 이 난은 1년 남짓 지속된 끝에 진압되었다. 묘청일파에 의해서 서경천도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인종이 이에 쉽게 동조하였던 것은 당시 황포해진 개경세력의 포위망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경세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⁴⁹⁾ 주지하다시피 이자겸 일파의 전횡은 마침내 왕실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 궁궐이 불타 없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왕실에서는 개경세력의 독주에서 벗어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서경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묘청의 난 이후 서경의 지위는 크게 격하되어 개경의 중앙관제와 대등하였던 서경관제가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1136년(인종14)에 유수감군, 분사어사대를 제외한 나머지 관을 없애게 하였고 이러한 기구 감축과 함께 경기사도를 폐지하고 강동(江東)·강서(江西)·중화(中和)·순화(順和)·삼화(三和)·삼등(三登)의 6현을 신설하였다.⁵⁰⁾ 이러한 조치는 반란을 일으킨 서경세력에 대한 처벌로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서경이 지니고 있던 독립된 정부 형태의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토관(土官)으로서의 관제의 단서를 이루는 것이었다.⁵¹⁾ 이후 의종대에는 무인정권이 성립되어 무인들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서 왕의 서경거동이 없어지게 되고, 무인정권이 무너지고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서는 고려왕실이 원의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독자적으로 서경경영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49) 하현강, 앞의 논문, p.169.

50) 『고려사』 제58권 지리3 서경유수관.

51) 하현강, 「고려시대의 서경」,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88, p.304.

이상 고려왕실과 서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태조를 비롯한 역대 왕들이 서경을 중시했던 이유는 첫째, 국방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서경은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상의 요지였고 이로 인해 외성과 내성을 축조하여 강한 방어력과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다.

둘째는 풍수지리의 입장에서였다. 태조의 훈요십조 중에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며 대업만대에 전할 땅인지라……’한 것과 같이 서경의 지리 특히 그 수덕이 평단 순조한 것을 중시하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였고, 이것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때 종종 표출되었다.

셋째는 왕권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고려 왕실은 그 초기부터 세력기반이 못 호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했으므로 늘 개경세력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경경영이 불가피 하였고 그 결과 개경세력에 의해 왕권이 크게 동요될 경우에는 왕의 요청에 의한 서경세력의 개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경세력은 왕실세력과 결합하였을 때에는 능히 개경세력을 제압할 수 있었으나 왕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경세력에 억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인종의 지지를 잃자마자 좌절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고려의 서경은 왕권강화를 위한 태조의 의도에 따라 중시되어 왕실과 관계를 맺고 발전해왔으며 개경과의 특수한 세력균형의 관계 위에 놓인 곳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하고는 작품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서경별곡>의 창작시기와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이 작품의 창작시기와 창작배경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2. 작품의 창작배경과 창작시기

<서경별곡>을 보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시각은 사랑하는 님의 변심으로 님이 떠나는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영원히 님과 함께 하고자 신의를 맹세하지만 님의 떠나는 걸음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체념하고 님이 다시 돌아봐주기를 염원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서경별곡>의 의미는 비교적 근접하게 해명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본 시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거, 이를테면 신라가요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계기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기초적인 관점이 결코 확고한 것은 될 수 없지만 작품만이 전해오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 작품만을 두고 모든 것을 해명하고자 할 때 이 방법론이 가장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의 연구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서경별곡>의 창작시기와 배경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나 연구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서수생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토대로 광종 11년에 서경의 명칭을 서도로 개칭한데서 광종 11년 이전에 지어진 노래라고 하였다.⁵²⁾ 그러나 『고려사』를 통해 서경으로 명명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고려 태조(920년 경) 이후에서 광종 11년(960년) 사이뿐만 아니라 성종 14년(995년)에서 목종 원년(998년) 사이, 문종 16년에서 공민왕(1360년 전후)사이에도 나타난다.⁵³⁾ 게다가 다른 명칭으로 불렸던 시기에도 서경으로 표기한 것이 더욱

52) 서수생, 앞의 책, p.209.

53) 『고려사』 제58권 지 제12 지리 3 서경유수관, 명칭의 변화과정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서경(태조4년)-서도(광종11년)-서경(성종14년)-호경(목종원년)-서경(문종16년)-평양(공민왕)
(921년) (960년) (995년) (998년) (1062년) (1360년경)

많이 보이는데, 광종 11년 이후부터 성종 14년 전까지 서도로 개칭되었음에도 서경이란 명칭은 6회 나타나지만 서도라는 명칭은 2회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목종(원년 998년)부터 문종 16년 전까지는 호경이란 명칭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 서경이 27회나 나타나는 반면에 호경은 5회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⁵⁴⁾ 따라서 서경의 명칭이 지시하여 주는 시간적 범위는 보다 넓은 까닭에 서경이란 표현만 가지고서 생성연대를 결정하기에는 허술하다.

그리고 정흥교는 평양 개건 후 서경이라 부르게 된 얼마오래지 않은 기간, 즉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부터 창작된 것으로 보았는데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신축한 작은 서울 마음에 들지마는)’이라는 구절이 평양 개건 후 서경이라 부르게 된 때로부터 수백년이 지나 창작되었다면 이런 가사가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⁵⁵⁾ ‘중수(重修)’의 의미는 낡았거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서경의 중수는 태조 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많이 피해를졌기 때문에 보수 사업을 크게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서경 축성(築城)을 비롯한 궁궐 축조 등은 여러 왕들에 의해 조금씩 행해져 왔다. 그러므로 ‘닷곤디’를 ‘신축한’의 뜻으로만 해석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역시 한 구절만으로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임주탁은 1연과 2연이 몽고침입과 강화천도를 계기로 일어난 필현보·홍복원의 반란으로 서경을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던 서북인들이 고려 조정과의 결속관계를 청산하고 서경을 떠나가면서 부른 노래이고, 3연은 임연의 원종폐위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최탄·한신의 반란으로 다시 고려와의 결속관계를 단절하고 대동강을 경계로 그 이남의 고려 정부군과 대치하던 서

54) 이에 대해 김창룡은 사술(史述)내내 서경이라 했으면서도 기술 중간 중간에 다른 명칭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순간적 즉자성에 입각한 명칭구사라고 하였다. 김창룡, 앞의 논문, p.250.

55) 정흥교, 앞의 책, p.142.

북인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하였다.⁵⁶⁾ 그러나 <서경별곡>은 떠나가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떠나보내는 이의 노래이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생성된 노래가 한 편의 작품으로 구성되기에 의미의 연관성이 없으며, 게다가 최탄·한신·필현보·홍복원은 고려에 반역한 인물들로 이들과 관련된 생성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궁중의 속악으로 채택했을지 의문스럽다.

이성주는 고려시대에 국제간의 교역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외국의 상인, 그 중에서도 아라비아 상인을 떠나보내는 여인이 부른 노래라고 하면서 퇴폐적 풍조가 만연했던 충렬왕 대부터 공민왕대로 시기를 추정하였다.⁵⁷⁾ 고려의 무역은 나말(羅末)부터 고려중엽에 걸쳐 융성하였는데 당시 대외무역의 상대국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것은 송(宋)이었다. 이성주가 지목한 아라비아——아라비아는 당시 <대식국>이라 불리었다——상인들은 송대에 남중국 연안에 흡입하면서 송상의 고려무역에 자극되어 고려 내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서경별곡>의 창작 시기를 충렬왕대에서 공민왕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고려사』 기록에 이 시기 아라비아 상인에 대한 기사가 전무하고, 고려 전 시대를 통틀어 아라비아 상인의 내왕에 관한 기사가 3회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와 그들 사이에 지속적인 무역활동이 행해지지 않고 있었음을 관련 자료로써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⁸⁾

이달에 대식국(大食國)의 열나자(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대식국은 서역지방에 있다.]⁵⁹⁾

56) 임주탁, 앞의 논문, p.117.

57) 이성주, 앞의 책, pp.188-189.

58) 송상인이 고려와 아라비아 상인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9) 『고려사』 제5권 세가5 현종 갑자 15년(1024). 是月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來獻方物[大食國在西域].

9월 신사일에 대식국(지금의 페르샤)의 만하(蠻夏), 선나자(洗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⁶⁰⁾

11월 병인일에 대식국(大食國)의 뜨내기 상인 보나개(保那盖) 등이 와서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 각종 물자를 바쳤다.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객관(客館)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⁶¹⁾

또한 이들이 서경에 머물렀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아라비아 상인과 접촉한 유녀가 얼마나 될 것이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노래가 당시 서경에서 유행하던 노래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서경인들의 보편적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 제79권 지 제33 식화2 화폐 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숙종 7년 9월에 왕이 명령을 내려 이르기를 “4민(四民-사, 농, 공, 상)은 각각 자기 직업에 전문으로 종사함으로써만이 참으로 국가의 근본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서경에서는 민간 풍습이 상업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익을 얻어 내지 못한다고 하니 유수관(留守官)은 화천별감(貨泉別監) 2명을 내신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날마다 시장과 상점들을 감독하게 하여 상인들로 하여금 모두 매매교환을 장려하여 이익을 얻도록 할 것이다.”…….⁶²⁾

위의 기록은 이성주가 제시한 시기⁶³⁾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위

60) 『고려사』 제5권 세가5 현종 을축 16년(1025). 九月辛巳大食蠻夏洗羅慈等百人來獻方物.

61) 『고려사』 제6권 세가6 정종 경신 6년(1040). 十一月丙寅大食國客商保羅蓋等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命有司館待優厚及還厚賜金帛.

62) 『고려사』 제79권 지33 식화2 화폐 조. 肅宗七年九月制曰四民各專其業實爲邦本今聞西京習俗不事商業民失其利留守官其奏差貨泉別監二負日監市肆使商賈咸得懋遷之利.

의 기록으로 미루어 서경은 상업적으로 그리 활발한 도시가 되지는 못한 것 같다. 더구나 후기로 갈수록 잦은 반란과 전쟁으로 인해 그 지위가 격하되고 폐허로 변해갈 뿐 아니라 원에 귀속(歸屬)되는 등 이로 인해 더욱 상업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열규는 <서경별곡> 창작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사』 세가(世家) 제18권 의종(毅宗) 21년 3월조에 보이는 중미정(衆美亭) 역사(役事) 설화처럼 부역(賦役)으로 인한 남녀의 강제적 이별에 두고 있다.⁶⁴⁾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는 근거를 ‘닷곤디’라는 어구에 두고 있는데, ‘닷곤디’는 그것이 이별의 원인이 아니고 떠나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부역으로 인한 서민생의 참상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향토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자극하기 위한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로 『고려사』의 기록과 ‘닷곤디’를 연결시킬 문맥상의 필연성이 없는 것이다.

이상 연구자들의 견해는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난점(難點)을 포함하고 있어 동의할 수 없고, 여기서 필자의 의견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앞서 <서경별곡>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작품 안에서 단서를 찾아야 함을 이미 말한 바 있다. <서경별곡>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에 나타나는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지명이라 생각된다. 서경과 대동강이 없으면 <서경별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63) 원 간섭기의 무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원이 주도하는 관무역이 행해졌는데 그 규모는 크지 않았고 토색의 경향이 심하였다. 둘째, 러원간의 무역은 공식무역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조공관계에 의하여 노략에 가까운 형식으로 고려의 물자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김신, 「북방무역에 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18집, 한국무역학회, 1993, p.32.

64)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4, p.291.

따라서 고려시대 서경이 가지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살펴 대동강가의 이별의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런 님(왕)의 변심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된 화자는 왜 님이 떠나는 상황에서도 맹목적인 신의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실제로 님(왕)이 떠나가는 문헌의 기록을 통해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경은 고려왕들에 의해 적극 경영되었는데, 서경경영은 왕권이 쇠약했던 고려왕실에서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을 상호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경세력과 개경세력의 역학관계(力學關係) 속에서 서경을 지지하던 왕이 개경세력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시점을 『고려사』에서 찾으면, 인종대로 시기를 좁힐 수 있다. 그 시기 중에서도 인종대 묘청반란이 일어난 시점에서 반란이 평정된 시기에 작품이 창작된 것이다. 인종대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살펴 작품창작의 동인(動因)을 살펴보도록 한다.

고려사회는 문종대를 고비로 정치·경제적 세력 확대를 노리는 문벌귀족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불안한 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귀족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왕권은 위축되어 갔는데, 인종대의 이자겸의 난은 그 신호탄이었다.

당시 인종은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늘 불안한 상태였다. 예종의 왕제들이 호시탐탐 왕위를 엿보아 인종의 외조부인 이자겸이 왕을 철저히 보좌하면서 그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직책이 높아지고 권한이 점차 확대되자 그의 아들들에게도 국가의 요직을 제수하고 나이가 제3녀와 4녀를 왕비로 보냄으로써 그의 세도는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추밀원사 지록연, 상장군 최탁, 오탁, 대장군 권수, 장군 고석 등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고, 이자겸은 왕비인 자기 딸을 통해 인종의 독살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그는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지만 좌절

되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었다.

한편, 당시 고려는 대외적으로도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여진이 세력을 키워 금나라를 세우고 사대의 예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고려를 위협하였고, 전통적으로 진행된 송과의 외교문제도 부담스런 사실로 다가왔다. 1126년(인종 4) 고려 조정에서는 금나라에 사대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모든 신하들이 반대하였으나 이자겸·척준경이 찬성하여 결국 사대의 예를 취하게 되었다.

인종대 초기의 안팎 사정은 대략 이러하였다. 비록 이자겸은 제거되었으나 척준경이 권세를 떨치고 있었고, 궁궐이 불타버린 수도에서 국왕의 권위는 실추되어 침체된 분위기였다. 이러한 혼란의 틈새를 타고 승려인 묘청을 비롯하여 정지상, 백수한 등 서경인을 주축으로 하는 일군의 세력이 지리도 참설을 근거로 삼아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중앙의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천도운동은 칭제건원과 금국정벌을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서경을 무대로 새로운 혁신정치를 펼치는 동시에 중흥공신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천도주도세력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인종도 그들의 의견에 따라 서경천도의 수행(遂行)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황포해진 개경세력의 포위망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경세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서경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면에는 본래 왕의 근신이었던다는 이유도 있지만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인종 측의 의도와 합치된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만큼 서경정책은 왕실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된 것이다.

그리하여 묘청일파의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 5년(1127년) 2월 왕의 서경행차에서 그 단초가 마련된다. 인종 5년 2월 인종은 즉위 후 두 번째로 서경에 행차하여 5개월가량 머물렀는데⁶⁵⁾, 그 동안 그곳에서 지난날의 이자

65) 인종의 서경에 대한 관심도이다. 인종은 1127년(인종5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서

겸과 마찬가지로 왕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었던 척준경을 거세하고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는 ‘유신지교(維新之敎) 15조’를 발표하였다. 인종은 이자겸의 난 후 개경의 혼란한 상태를 잠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서행한다 하였으나 이는 결국 왕실과 서경세력⁶⁶⁾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들의 제휴는 서경천도론에 확신을 주었다. 『고려사』를 통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2월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틈을 타 일어나서 음모가 발각되었으므로 짐은 부득이 모든 법으로 다스렸다. 이로부터 허물을 반성하고 몸을 책(策)하니 덕(德)에 부끄러움이 많다. 이제 일관의 논의로 서도에 행행(行幸)하여 깊이 기왕의 허물은 반성하고 유신의 교가 있기를 바라며 중외에 포고한다.”⁶⁷⁾

이때부터 서경권의 정지상과 백수한 및 묘청이 중앙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고 서경은 인종이 새 정치를 펼치는 중요한 정치무대로 부상하게 된다. 정지상⁶⁸⁾은 당시 명성이 높은 문인이자 학자로서 불교·도교에도 식견이

경에 머물렀다. 인종 이전 왕들도 서경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종만큼 오랫동안 머무는 왕은 없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권을 제약하는 문벌귀족들이 싫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당시 상황은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불안한 분위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인종의 서경왕래는 많아지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종7년(1129년)에 신궁이 완성되자 그 곳에서 정사를 돌보고 대신들에게 청제건원과 금국 정벌문제의 가부를 묻기도 하였다. 김윤곤, 「고려귀족사회의 제도순」,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pp.73-74 참조.

66) 여기서 서경세력은 인종의 근처에서 서경천도를 추진해 나갔던 서경 출신자들과 이들의 입장에 동조한 김안과 같은 근신세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서경세력들 중에서도 서경천도론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고 서경세력이 아님에도 서경천도론에 동조했던 이들도 있었다.

67) 『고려사』 제15권 인종 5년 3월조. 去年二月亂臣賊子乘間而起陰謀發覺朕不得已咸致於法自是引咎責躬慙德多矣今以日官之議行幸西都深省既往之愆冀有惟新之敎布告中外咸使聞知.

68) 정지상은 서경의 아들로서 서경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지상이 인종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과 인종이 정지상을 신임한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전부터 돈독하였기 때문이다. 그 돈독한 관계 결성의 최대의 사건은 인종이 태자로 책봉될 때 정지상이 어연(御宴)에서 치어(致語)를 지어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였던 사실이다. 그리

깊었지만, 지리도참을 굳게 믿어 묘청을 추종하고 그를 왕에게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서경세력과 인종은 인종 5년부터 10년까지 5년간은 중앙관인들이 암묵적이고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경천도론에 지지하는 입장을 강화해 나갔다. 이들은 서경천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묘청은 성인이요, 백수한도 그 다음가는 사람이니 국가의 일은 일일이 제문한 뒤 행하시고 그 진정하는 바는 들어주지 아니함이 없어야만 정사가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되어, 국가를 가히 보존할 것입니다.⁶⁹⁾

상경은 지세가 쇠한 고로 하늘이 재화(災禍)를 내리어 궁궐이 다 탔으니, 모름지기 자주 서경에 거동하여 재앙을 피하시고 복을 모아 무궁한 왕업을 누리소서 하였다.⁷⁰⁾

서경임원역의 지세는 지리도참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대화세이므로 그곳에 궁궐을 짓고 왕이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하고 금국이 폐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해오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되리라는 것이었다.⁷¹⁾

그러나 그들의 주장대로 잦은 순행을 하고 대화궁도 건설했으나 불행히도 대화궁이 완성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오히려 대화궁 근처에 여러

고 예종시절부터 태자, 명신현사(名臣賢士)와 함께 학문을 함께 토론하면서 ‘중화지풍(中華之風)’에 버금가는 학풍을 진작하는 데 이바지 하였고, 그 가운데 정지상은 그의 문학적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여의 비문과 동산재를 지음으로써 다시 한번 인종의 충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권오경, 「남호 정지상의 시세계 연구」, 『문학과 언어』 제23집, 문학과언어학회, 2001, pp.175-176.

69) 『고려사』 제127권 열전40 묘청전. 妙淸聖人也白壽翰亦其次也國家之事一一答問而後行其所陳請無不容受則政成事遂而國家可保也.

70) 『고려사절요』 인종 10년 2월. 幸西京時妙淸白壽翰奏曰上京地勢衰故天降災孽宮闕焚蕩數御西京以享無窮之業.

71) 『고려사』 제127권 열전40 묘청전. 西京林原驛地是陰陽家所謂大華勢若立宮闕御之則可并天下金國執贄自降三十六國皆爲臣妾.

번 벼락이 치는 등 재이(災異)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심지어는 인종이 서경에 행차하는 도중에 폭풍우가 쏟아져 시종과 군사들이 진흙탕에 덩굴어 사람과 말이 죽고 국왕이 혼비백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⁷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정지상 등은 왕이 서경에 거동했을 때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는 상서로운 일이 있다”고 했다가 “우리가 나이는 먹었지만 귀는 먹지 않았다”고 대신들의 공박을 받기도 하였다.⁷³⁾ 또 대동강에 오색 빛이 난다고 하여 “신룡이 침을 뱉고 있으니 상서로운 것이다.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구운 기름을 넣은 떡을 던져둔 것이 발각되기도 하였다.⁷⁴⁾

그러나 묘청 일파의 허황한 술수가 드러나고 천도실행의지가 강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었던 듯 인종 10년에야 천도문제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12년까지 계속적으로 정향, 임원, 이충, 문공유, 김부식 등 중앙 귀족관인들의 잇따른 반대상소가 이어졌다.⁷⁵⁾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괴변도 잇달아 나타났다.

그 결과로 왕과 서경세력 간의 서경천도 논의는 일단락되고, 이후 인종의 서경순행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당시 왕의 서경천도에 대한 태도는 단지 논의 차원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⁷⁶⁾ 왕은 결코 왕건의

72) 『고려사절요』 인종 8년 9월. 西京重興寺塔災或問妙清日師之請幸西都爲鎮災也何故有此大災妙清慚赧不能答, 인종 10년 2월. 行至金岩驛路風雨暴作晝忽晦冥衛士顛沛王執轡迷路或陷泥濘或觸柿石侍從失王而之宮人或有哭泣者及晚雨雪寒甚人馬駱駝死者非一.

73) 『고려사절요』 인종 7년 3월. 三月御新宮乾龍殿受群臣賀妙清壽翰知常等言方上坐殿聞空中有樂聲此豈非御宸闕之瑞乎遂草賀表請宰樞署名宰樞不從曰吾儕雖老耳尚未聞空中之樂會所未聞人可欺天不可欺也.

74) 『고려사절요』 인종 10년 윤4월. 妙清白壽翰等密作大餅空其中穿一孔盛熟油沉于大同江油浮出水面望若五色壽翰等曰神龍吐涎作五色雲此非常之嘉瑞也請百官表賀王遣平章事文公仁叅知政事李俊陽等審視之時有業油翰者告曰熟油泛水則有異色於是使善泅者索得乃知詐也.

75) 『고려사절요』 인종 10년 4월, 8월, 11년 11월, 12년 9월.

76) 묘청일파는 국가의 중대사인 천도문제를 공론은 경시한 채 오로지 국왕만을 상대로 급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의 안위가 걸린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세판단이나 객관적인 이해득실의 숙고보다는 민족적 감정을 앞세운 경향이 컸다. 지리도참설을 바

창건지인 개경을 떠나 새로운 천도지를 서경에 두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단지 왕건의 유훈을 받들어 그것을 정치에 운용하려 했던 것이다. 즉, 천도 문제는 혼란한 정국을 정신적인 기치로 가다듬고 왕권강화에 주력하는 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서경천도운동이 뜻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묘청은 류참, 조광과 더불어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국왕의 명령을 사칭하여 개경에서 파견된 관리를 모두 잡아 가두고 평안도 지역 여러 성들의 군사를 징발하였다.

그러나 함께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정지상·백수한 등은 거사계획에서 제외되어 아무것도 모른 채 개경에 머무르고 있었고, 서경에서의 거사사실을 늦게 접한 뒤 채 입장정리도 하기 전에 김부식에게 체거 당하고 말았다. 또한 묘청 역시 거사초기에 관군이 개입되는 긴박한 사태로까지 확대되자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역민의 응징으로 살해당하였다.⁷⁷⁾

그런데 이들을 진압하는 입장에 서서 김부식과 협력하여 정지상의 제거 및 서경민의 거사를 평정한 김정순(金正純), 노영거(盧令居), 정정숙(鄭旌淑) 등은 그야말로 서경권 출신 관인파들이었다. 이들 중 중심적인 역할은 김정순(金正純)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⁷⁸⁾ 김정순은 『고려사』 제98권 열전에 의

탕으로 천도운동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연히 부닥친 재이의 현상을 궤변으로 대처하였고, 상서와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 사술까지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그들의 천박성이 드러나자, 유교적 합리성으로 무장한 다수 신료들의 강한 비판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이제 성년에 접어들어 식견을 쌓게 된 국왕까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77) 『고려사절요』 인종 13년 정월.

78) 김부식이 정지상을 제거할 때 앞세우는 인물이 김정순이며 이후 서경지역을 평정할 때 김부식의 좌군사로 함께 출정하고 있다. 김부식은 정지상을 제거코자 “서경의 반란에 정지상, 김안, 백수한이 공모하고 있으니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서경을 수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김정순에게 비밀지시를 주어 용사를 시켜 그 세 명을 끌어내어 궁문 밖에서 목 베인 후 왕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에서 김부식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같은 서경출신인 김정순을 부추겨 마치 지난날 정지상이 척준경을 제거하듯이 김정순으로 하여금 정지상을 척결토록 하였다. 김정순 역시 그동안 정지상 등의 독주가 못마땅했을 것이며 같은 서경권에서 중심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고려사』 제127권 열전40 묘청전 참조.

하면 황주출신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일찍이 무예로써 기가(起家)하여 예종 때 여진 정벌에 출정해 공을 세움으로 벼슬이 합문지후(閤門祇候)에 이르렀다가 화주(和州)와 수주(水州) 두 고을 원으로 나가 있었으나 본래 행정사무에 익숙지 못하고 문부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다만 대체만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정지상 등과는 기반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지상 등이 천도문제에 앞장서서 움직임을 가질 때에 왕권을 보좌하는 의미의 침묵만을 지키다가 결국 이즈음에 김부식 등과 결합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⁷⁹⁾ 더구나 정정숙과 노영거 등은 앞서 최흥재와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던 탓에 당시에 귀양 보내졌던 인물들이다. 이들 역시 왕권강화를 지지했던 서경세력권으로서의 같은 성향 때문인 것이다.

결국 서경세력은 서경천도문제를 두고 실행방법상의 차이로 3분화되는데, 묘칭의 주도하에 서경천도론을 적극적으로 고집하여 급기야는 난을 일으킨 세력, 서경천도에는 동의하였으나 난으로까지 확대를 원치 않았던 정지상·백수한 등의 관인화한 온건세력, 김정순, 노영거, 정정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반란을 평정하는 세력이 그것이다.

서경세력권의 분화는 서경지역민의 항쟁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처음 시작한 천도실행을 촉구하는 다분히 시위적인 것으로 중앙과의 타협적인 연계 가능성도 가졌던 것이었지만 핵심인물인 3인방의 죽음과 관군의 지나친 제압은 점차 서경민의 2차 항쟁을 촉발시켰다. 2차 항쟁이 발발한 까닭을 잠시 살펴보자.

인종과 김부식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경은 물론 인근지역을 효유하는 방

79) 13년 정월에 “왕이 재신과 추신들을 불러 의논하고 평장사 김부식, 참지정사 임원애, 추밀원승선 김정순에게 명하여 병부에 앉아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토벌할 계획을 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김부식, 임원애를 중군수로, 김정순, 정정숙, 노영거, 임영, 윤언이, 이진, 고당유, 유영을 그 보좌로…….삼았다.”는 사실에서 김부식과 함께 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을 써서 불필요한 살상과 양민의 희생을 줄이고자 하였는데, 조광 등은 대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속으로는 나와서 항복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죄가 중하여 주저하고 있었다. 그즈음 평주판관 김순부가 조서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니 서경인들은 묘청과 류참 등을 척결하면서 거사자체가 무마될 것으로 봐서 그들의 머리를 베어 중앙으로 보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사신들을 옥에 가두고 극형을 내리고자 하였으니 조광 등은 이를 듣고 반드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 짐작하고 다시 반역하였다.

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김부(金阜), 내시 황문상(黃文裳)과 윤첨(尹瞻)을 보내 서경에서 조서를 반포하였는데 김부 등이 은혜로 무마하고 위로하지 않고 위엄으로 억압하니 서경의 적들이 원망하고 노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재차 거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란의 주도자들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서경지역민의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자극하여 근 1년간이나 항쟁을 지속했던 것이다.

당시 서경민들을 이끌고 항쟁을 계속 주도했던 인물들은 주로 분사기구하에서의 관직자들이었는데,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들과 성향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았다.

㉠서경의 장군 일맹(一孟)이 와서 적의 실정을 자세히 고하니 왕이 벼슬로 상을 주고 주택을 하사하였다.⁸¹⁾

㉡적은 또 그의 도당이 투항할까 염려하여 우리 중군의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군중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모든 군병에게 포로된 자와 항복한 사람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살해되었다”하니 서경의 적들이 매우 깊게 믿었으나, 얼마 뒤에 항복한 자를 매우 후하게 위무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적들이 점점 귀순하게 되

80) 『고려사절요』 인종 13년 정월.

81) 『고려사절요』 인종 13년 정월. 是日西京將軍一孟來告賊狀甚詳王賞職賜宅.

었다.⁸²⁾

㉟분사 호부상서 송선유(宋先宥)는 병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병을 청탁하여 두문불출하였고, 장서기 오선각(吳先覺)은 거짓으로 어리석은 체하여 적에게 가담하지 않았으며, 또 태창승 정충(鄭聰)은 효행으로 알려져 모두 그 마을 앞에다 표시하였다. 의학박사 김공정(金公鼎)이 김부식이 보낸 좌랑 노영거(盧令居)를 조광이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 비밀리에 알려 피하게 하였다. 소감 위근영(韋瑾英)은 늙은 모친이 있었으므로 길으로는 적에 위배하지 못하고 한유관(韓儒琯)·안덕칭(安德稱)·김영년(金永年)과 함께 거짓으로 상여를 꾸며 장사를 지내는 것같이 하여 성문을 나오려다가 일이 누설되어 위근영·한유관은 잡혀가 매질을 당하고 낙형을 입었으나 죽을 때까지 끝내 공모자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안덕칭과 김영년은 해를 면하였다.⁸³⁾

㊱무오(戊午) 일에 서경 사람들이 적의 괴수 최영(崔永) 등을 생포하여 가지고 항복하여 오니 김부식이 그들을 받아서 해당 관리에게 넘겼으며 군인들 일반 성년자들, 노인, 유아, 부녀들에게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위안한 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들을 보전하게 하였다.⁸⁴⁾

㊱입성하여 성상의 뜻을 선포하니 백성들은 거꾸로 달았던 사람을 풀어 놓은 것처럼 기뻐하였으며 성내에 와 있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대체로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거리의 전방들이 그전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높다란 성문들도 그 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악당들을 이미 제거하였으므로

82) 『고려사절요』 인종 13년 윤2월. 又恐基黨降附詐爲我中軍文牒示衆曰諸軍而俘及降民無問老少皆殺之西賊頗信之已而聞撫慰降者甚厚故賊黨稍稍歸順.

83) 『고려사절요』 인종 14년 2월. 分司戶部尙書宋先宥自兵興稱病杜門掌書記吳先覺佯愚不附賊太倉丞鄭聰以孝行聞皆旌表門閭醫學博士金公鼎知趙匡謀殺富軾而遣佐郎盧令居密告令避之少監韋瑾英以有老母不能背賊與韓儒琯安德稱金永年僞爲喪輿若送葬者將出門事洩瑾英儒琯被擄掠炮烙至死終不援引故德稱永年等免害.

84) 『고려사』 제98권 열전11 김부식전. 戊午西人執賊魁崔永等出降富軾受之下吏慰諭軍民老幼婦女令入城保家室.

……부로들과 부녀자들을 비롯하여 어부, 초부, 목동 등에 이르기까지 앞을 다투어 뛰어나와 환호하면서 ‘오늘 뜻밖에 다시 임금님의 백성으로 되었구나!’하고 큰 소리로 서로 축하하였습니다.⁸⁵⁾

㉠-㉡의 사료를 통해서 내부에서 항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경인들 중에는 이들과 같이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항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서경반란을 진압하던 김정순과 노영거, 정정숙 등도 서경세력 내부의 반란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다. 묘청을 비롯한 반란세력들은 민을 선동하여 왕실과 중앙개경정부에 반하였지만 그들은 묘청의 무리와 입장을 달리 함으로써 왕실과 중앙정부에 충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반란세력을 척결하여 그 동안 묘청일파에 의해 밀려나 있던 주도권을 회복하여 서경권의 중심부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작용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서경별곡>은 내부의 분열된 상황 속에서 왕실을 지지하는 김정순과 노영거 등의 세력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작되어 그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서경성 내의 송선유, 오선각 등과 인종의 너그러운 처세에 감화된 서경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불리어진 노래인 것이다.

사실 일반민들이 묘청의 난에 가담한 것은 서경천도나 금국정벌보다는 그들의 현안(懸案)인 수탈체제에 대한 반발이었다.⁸⁶⁾ 또한 항쟁에 가담했던 일반민들은 무지하고 힘이 없기에 묘청과 조광일파에 의해 이끌릴 수밖에

85) 『고려사』 제98권 열전11 김부식전. 於是入淮西而宣布上意如解倒懸復長安而撫綏遺黎盖云歸處豈特市廛之不改巍乎城闕之俱存毒螫既除腥膻已滌遂掃……父老士女漁樵芻盭踴躍爭前驩呼相詡謂不圖於今日乃復得爲王人.

86) 인종대 초기 권력가들의 토지수탈로 인해 일반민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서경은 금국 사신의 사행로로서 금국의 빈번한 사신 접견과 고려에서 파견하는 사신에게 드는 국고의 낭비로 인해 서경민들이 받은 고충과 피해는 더욱 컸다. 강성원, 「『고려사』 열전 연구 : 반역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9, p.85

없었다. 조광을 비롯한 반란세력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지역적 모순의 누적으로 불만이 쌓인 지역민들을 이용하는 한편, 위력으로 누름으로써 계속해서 항쟁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

장기간의 항전은 서경민들의 고립과 경제적인 결핍을 촉발하였고, 여러 차례 걸친 효유는 민심을 돌리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⁸⁷⁾ 게다가 인종은 서경이 평정된 후에도 그 처리에 있어 회유와 온건한 방법을 택하고 있어 민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감사와 연군의 마음을 지니게 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⁸⁸⁾ 그리하여 이 노래는 묘청의 반란이 일어난 시점부터 평정된 시기 사이에 창작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효유와 위무를 베풀어준 왕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맹세한 노래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서경별곡>은 서경인들의 반란을 계기로 생성된 노래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반란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왕실에 충성하고자 하는 노래이므로 왕실에서도 별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님은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소중한 서경과 생업도 다 버리고 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노래하니 왕실과 개경의 중앙지배층에는 더없이 흡족한 가사 내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87) 또 성 밖의 백성으로서 산골짜기에 도망해 숨은 자들이 서로 불러 모여 적의 응원군이 되거나 앓을까 염려하여 군리를 나누어 파견하여 위로하고 타이르니 도망해 숨었던 자들이 모두 나와서 군량도 운반하며 혹은 군비를 돕기를 원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모두 옷과 음식을 공급하여 편안히 살게 하였다. 『고려사절요』 인종 13년 2월.

88) 인종이 김부식에게 서경을 평정한 공로로 하사물을 내림과 동시에 조서를 보냈는데 “역적 조광은 소소한 악인으로 험준한 지세를 이용하여 ...장병들의 투지를 발휘시켜 반역자의 씨가 남지 않도록 뿌리 채 뽑아버릴 방도를 모르는 바 아니로되 평양은 시조가 나라를 창건하신 땅이란 것도 생각하고 또한 다수한 생민들은 누구나 다 나의 백성들이라 전체를 도록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조서를 내리어 두세 번 개유하여 마음을 고치고 귀순하여 가공히 생각해 주는 조정의 은혜를 체득하기만 기대하였던 것은 그대도 잘 아는 바이다...” 라고 하여 회유적인 방법으로 설득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제98권, 김부식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경별곡>이 고려조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은 조선조에 고려의 음악을 수용하는 데 있어 고려적인 것을 부정하는데서 연유한 까닭이다. 이를 『고려사』 악지에 실린 속가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서경>, <대동강>, <양주>, <장단>, <정산>, <금강성>, <송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모두 왕을 송축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가 전해지지 않는다. 악지에는 이어로 되어 있어 가사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고려의 서경이나 양주, 공민왕과 관련되는 장단, 개경의 진(鎭)인 송산, 현종의 축성, 몽고의 침입과 관련되는 금강성 등 대체로 그 내용에 있어 고려적인 것을 함의하는 것은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전승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⁸⁹⁾ 그리하여 고려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사회고발성이 짙은 속가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고려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배제하면서 왕에 대한 송축이나 문물제도의 찬양에 관한 노래는 악지의 수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썼다.⁹⁰⁾ 이와 같이 <서경별곡>은 조선 창업자들과 유학자들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기록되지 못하였고, 조선조 악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회상을 제거하여 표면적인 의미만 부각·왜곡시켜 기록하여 전한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3. 작품의 작자층

지금까지 <서경별곡>의 작자층에 대한 견해는 작품 속에 여성의 전유물

89) 최미정도 선초에 속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고려를 기억하게 하는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손질하였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최미정, 「고려 속요의 수용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pp.87-88.

90) 김쾌덕, 「조선 건국 초 속가의 수용 상황과 변개」,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5, pp.78-79.

인 길쌈베와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화자와 작자를 동일시하여 유녀나 기녀 혹은 평민 여성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양주동은 『여요전주』에서 다음과 같이 작자를 규정하고 있다.

本歌의 작자 및 여대는 總히 불명하다. 여사 악지에는 서경이라는 속악이 있으나 그 해설엔 ‘西京 古朝鮮 卽箕子所封之地 其民習於禮讓 知尊君親上之義 作此歌言仁恩充暢 以及草木 雖折敗之柳 亦有生意也’라 하였으니 이는 본가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者이다. 그러나 本歌는 上揭익제의 한역(제2연)이 진작부터 있고 성종조에 종묘악 중 재래 전통적으로 仍用하던 諸俗樂을 刪定할 때 쌍화곡, 이상곡, 북전 및 本歌 등이 소위 남녀상열지사로 문제에 올랐으니 속요로서 실제 민간에 가창되었음이 진작 전조로 부터임을 알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本歌 및 청산별곡 이하 수편은 한림별곡의 형식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아마 本歌는 려대 서경에서 濫觴되어 盛히 민간에 불려진 노래일 것이다.⁹¹⁾

위에서와 같이 그는 <서경별곡>이 고려시대 서경에서 민간인들에 유행하던 노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녀(遊女)의 작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수생과 이성주도 <서경별곡>을 유녀의 작이라고 보았는데, 서수생이 일편단심 굳은 정절을 가진 유녀로 본데 반해, 이성주는 성의 문란함을 기탄(忌憚)없이 받아들이는 환락가의 유녀로 보았다.⁹²⁾ 일반 평민여성의 작이라 보는 견해도 일반 여성의 생업인 길쌈베가 나온다는 것 외에는 화자의 태도나 정서표출이 유녀작이라 보는 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박혜숙은 <서경별곡>의 정서는 봉건시대 민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농민의 것과는 다르므로 작품의 ‘근원적’ 창작자는 민중 가운데서도 도시 평민층 및 직업적 예능인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⁹³⁾

91) 양주동, 앞의 책, p.277.

92) 서수생, 앞의 책, p.209.

이성주 앞의 책, pp.188-189.

그러나 <서경별곡>에 나타난 길쌈베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여성의 작으로 추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애정의 표출이 적극적이고 직설적이라 해서 유녀의 작이라 보는 것은 화자의 맹목적(盲目的)이고 직서적(直敍的)인 태도가 정상적 사회관계 속의 여성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기에, 연상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이 한정된 데서 나온 결론이다. 유녀가 정상적 사회관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좋은 존재라고 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서경별곡>을 남녀상열지사라 폄하한 조선시대의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되지 못함에도 오늘의 기준과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충신연주지사로 쓰이는 노래를 작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읽었을 때 작자를 여성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 <서경별곡>이 여성에 의한 사랑노래가 아니라 여성의 입을 빌려 충성을 노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때 차용되는 여성화자는 퍼소나(Persona)⁹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작가의 의도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다. 이별의 상황에 대하여 피동적(被動的)으로 바라보며 애태우는 여성의 특질은 군신관계에서 극단적으로 당위의 윤리가 요구되는 신하(백성)의 위치를 드러내기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나약한 감성을 내포하는 호소조는 듣는 이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거부감 없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정과정곡>의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가 확연하게 여성

93) 박혜숙, 앞의 책, p.298.

94) 시인은 작품 ‘밖’에 존재하지만 화자는 작품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화자를 시인과 구분할 때 퍼소나(persona)라 불린다. 퍼소나는 배우의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퍼소난도에서 유래되었는데, 얼굴을 숨기거나 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도리어 그 얼굴을 명확히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점차 어느 뚜렷한 인물 혹은 개성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되었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제4판), 2004, pp.282-283.

화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열규는 충신연주지사의 원류로서 <정과정곡>을 들면서 ‘저자가 남성임을 감추고 님이 왕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버려진 마음 약한 여인이 옛 연인을 잊지 못해 연연해하는 나머지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노래 짝으로 짐작하기 알맞은 노래’라고 하였다.⁹⁵⁾ <서경별곡>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유무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강명혜는 님과 화자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보았는데, 작품의 작자를 서경에 있는 신하(백성)라 보고 화자의 님에 대한 일방적(一方的) 태도를 근거로 들었다.⁹⁶⁾ 고려시대 남녀 간의 애정관계는 서로 간의 애정이 밑바탕이 되어 신의(信義)와 정조(貞操)를 지키는 것이 보편적인데 <서경별곡>은 한쪽의 신의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므로 군신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님과 화자의 관계를 군신(백성)으로 보는데 동의한다. 앞에서 <서경별곡>이 묘청의 반란이 일어난 시기에 반란을 반대하는 편에서 왕실을 지지하는 세력집단에 의해 노래가 창작되었고, 그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서경민들에게 확산되어 불리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처음에 왕실을 지지하는 세력집단, 즉 일반민이 아닌 김정순이나 노영거 등의 집단에 의해 노래가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노래가 민중으로 침투(浸透)되고 확산(擴散)되었기에 그 형태는 민요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전해지는 모습이 바로 순수한 민요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식의 세련성에도 불구하고 직선적(直線的)이고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 표현을 통해 민중의 감정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민요적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들은 교

95) 김열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92, p.419.

96) 강명혜, 앞의 책, p.179.

양 있는 양반계층과는 달리 분출되는 감정을 쉽게 통어(統御)할 능력이 부족한 민중의 생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구슬, 끈, 꽃 등의 상징이나 비유가 사용되고 있지만 박노준의 말⁹⁷⁾과 같이 <가시리>와 <동동>, <만전춘별사> 등을 창출해낸 고려 서민계층이라면 이 정도는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고려사』 악지 속악 조에 송축적 내용을 담은 <서경>과 <대동강>이 있음에도 <서경별곡>이 고려의 속악으로 채택된 것은 <서경>과 <대동강>이 일시적 공감을 얻어 발생되고 전승되었지만 끝내는 전 민중의 심성을 시대를 넘으면서까지 공감영역을 확대할 만한 정서의 보편성(普遍性)과 절실성(切實性)이 결여되었기 때문에⁹⁸⁾ 점차 소멸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서경별곡>이 이 두 노래보다 서경 지역인들의 보편적 정서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길어 고려 속악으로 채택(取擇)되어 조선조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종합하면 묘청을 비롯한 반역의 무리와는 달리하여 왕실을 지지하며 인종(仁宗)을 향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 서경인들이 왕에게 다시 돌아봐주기를 부탁드리며 부른 노래가 <서경별곡>인 것이다.

97) 박노준은 <청산별곡>의 작자를 논하는 부분에서 그 작자를 일반 피난민으로 보면서, 고도의 상징성, 깊은 철학 운운한 끝에 지식이나 귀족 계급이 창작한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으로써 풀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지 고려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것도 아니었을 것이며, <가시리>와 <동동>, <만전춘별사> 등을 창출해낸 고려서민계층이라면 세련된 작품창작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박노준, 앞의 책, pp.100-102

98) <서경>과 <대동강>은 『고려사』 악지의 기록을 통해보면 기존의 질서와 융화(融和)하기 위해 지어진 찬양(讚揚)의 문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노래에 대한 기록에서 조선에 기자를 봉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 의해 창출된 어용문학(御用文學: 문학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저버리고, 그 시대의 권력가나 기관에 아부하여 그 정책을 찬양·공명하는 문학)은 민중들 사이에 깊이 파고들기가 어려워 그 생명이 길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연선, 「고려가요의 사회적 모티브와 반사회적 모티브」,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경운출판사, 1993, pp.145-146 참조.

Ⅲ. <서경별곡>의 연군가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1. 작품의 연군가적 성격

<서경별곡>의 성격에 관련된 논의는 ①남녀 간의 별리(別離)와 애정(남녀상열지사)의 노래로 보는 견해와 ②왕에 대한 송축(頌祝)·연군(충신 연군지사)의 노래라고 보는 견해로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남녀 간의 별리와 애정을 노래한 것으로 본 연구자는 양주동, 박병채, 김택규, 이계양, 윤영옥, 박노준, 김창룡 등이 있고⁹⁹⁾, 송축·연군을 노래한 것으로 본 연구자는 강명혜이다.¹⁰⁰⁾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서경별곡>을 남녀 상열적 노래로 본 데 비해 연군적이고 송축적인 노래라고 본 강명혜의 연구는 특기할 만하다.

먼저 남녀 간의 별리와 애정으로 본 논의를 살펴본다. 이성주는 고려 말 외국 상인과 유녀 사이에서 일어난 애절한 사랑노래로 보았으며 윤영옥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기에 여염가(閭閻家)의 부인이 남편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며 부른 노래라고 하였다. 이계양도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불

99) 양주동, 앞의 책, p.277.

김택규, 앞의 책, p.303.

이계양, 앞의 논문, p.101.

윤영옥, 앞의 책, pp.102-103.

박노준, 앞의 책, p.267.

김창룡, 앞의 논문, pp.252-253.

100) 강명혜, 앞의 책, p.162.

가피하게 님을 보내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 하였고, 그 외 연구자들의 견해도 이별의 상황에서의 슬픔과 님에 대한 원망을 읊은 노래라고 보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교하기를, 종묘악의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과 같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속악(俗樂)의 <서경별곡(西京別曲)>과 같은 것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이니 매우 불가하다. 악보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곡조에 의하여 따로 가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예조(禮曹)에 묻도록 하라.¹⁰¹⁾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악(樂)은 ‘희문(熙文)’으로부터 ‘역성(釋成)’까지가 <보태평(保太平)>이니 영신(迎神)과 초헌(初獻)에 쓰는 것이고, ‘소무(昭武)’로부터 ‘영관(永觀)’까지가 <정대업(定大業)>이니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가사(歌詞)가 있어 남녀(男女)가 서로 좋아하는 속창(俗唱)이 아닙니다. 다만 <정대업>의 ‘혁정’은 곡조와 가사가 <만전춘>과 유사하고 ‘영관’은 곡조와 가사가 <서경별곡>과 유사해서 이것이 듣기에는 속창(俗唱)에 가깝습니다.¹⁰²⁾

위 『성종실록』의 기록은 <서경별곡>이 조선조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문제시되었음을 보여 준다. <서경별곡>을 남녀 간의 별리나 애정을 읊은 노래로 분류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서경별곡>을 남녀상열지사로 폄하(貶下)한 조선조의 시각에 맞춰져 있다. 평가가 이미 고정된 것이기에 한정된 시각 안에서 작품을 바라보게 그러다보니 작품이 가지는 함의를 축소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또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101) 『성종실록』 19년 4월조. 傳曰宗廟樂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其餘俗樂如西京別曲男女相悅之詞甚不可樂譜則不可卒改依曲調別製歌詞何如.

102) 『성종실록』 19년 4월조. 禮曹啓曰宗廟之樂.....各有歌詞非男女相悅之俗唱也但定大業赫整調似滿殿春永觀調詞似西京別曲是以聽之近於俗唱.

그에 알맞은 사회상을 찾는데 주력하게 되어 결국 노래발생의 원인이 내우 외환(內憂外患)이나 공녀제(貢女制) 등에 다 같이 귀착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¹⁰³⁾

『성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서경별곡>은 궁중의 제례악(祭禮樂)으로 조선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궁중악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서경별곡>에 나타나는 화자의 시종일관 님을 좇으려는 태도와 한 쪽의 신의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은 군신관계에서 연군의 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송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경>과 <대동강>이 있음에도 <서경별곡>을 궁중악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은 이 노래의 주제가 송축과 연군이라는 점에서 그 함의가 동일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서경별곡>은 서경 지방에서 널리 불리던 민요가 악장(樂章)으로 승화(昇華)된 것이다. 궁중의 노래를 민간에서 채록(採錄)하는 습관은 일반적인 일이었는데¹⁰⁴⁾, 그렇다하더라도 대악서(大樂署)에서 음악행정을 맡았던 관리들은 과거시험에 의해서 등용된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었던 만큼, 민간에 떠도는 사랑노래, 그것도 음설이나 비리(鄙俚)한 내

103) 이성주는 충렬왕대에서 공민왕대로 보았고, 이계양은 고종 이후 어느 내우외환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동원도 원지배하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고려후기의 어지러운 사회상황 속에서 노래가 창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104) 『세종실록』 제61권 15년 9월조에 “聲樂之里有關時政今慣習樂五十餘聲並新羅百濟高麗時民間俚語猶可相見當時政治得失足爲微戒”라 하여 신라백제고려 때 민간 이어(俚語)로 된 향악 50여성(餘聲)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궁중으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태고 이래의 구전요(口傳謠)들이 궁중에 유입되어 제례악이나 연악에 사용되었고, 고려의 속악(俗樂)에도 이러한 노래들이 채택되어 제례나 연악에 쓰였을 것이다. 또한 『동문선』 제104권에 “旁採民謠仰呈口號(한편으로 민요를 채집하옵고 구호를 우러러 드리옵나이다.)”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 서문(序文)에도 “不可以詞語鄙拙爲解, 謹採民俗稱頌之言, 편歌詩一百二十五章…(사어가 비졸하다고 게을리 할 수 없사와 삼가 민간에서 칭송하는 말을 채집하여 노래의 시 125장을 편찬하였사온데…)”라 하여 궁중의 노래를 민간에서 채록하는 습관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명혜, 앞의 책, p.25에서 재인용.

용의 노래를 아무런 기준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요 중에서도 칭송(稱頌)하는 내용이라든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는 노래들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것은 『고려사』악지 속악 조에 실린 지방요의 성격을 가진 <서경(西京)>, <대동강(大同江)>, <장단(長湍)>, <금강성(金剛城)>, <송산(松山)>, <양주(楊州)>, <장생포(長生浦)>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경별곡> 역시 서경지방에서 불리어진 지방요이지만 왕실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궁중악가로 수용이 용이했던 것이다.

또한 고려속가와 같은 범주의 여성화자의 사랑노래가 이미 광종(光宗)때부터 궁중에서 유행하였고¹⁰⁵⁾ 속가와 송사(宋詞)가 유행하던 고려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랑노래의 형식으로 왕을 송축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조(風潮)였다고 생각된다.¹⁰⁶⁾ 그렇기 때문에 <서경별곡>에 나타나는 여성화자의 사랑노래 형식은 왕에 대한 송축이나 연모의 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하여 악장(樂章)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서경별곡>이 남녀상열지사라 하여 산개(刪改)의 대상이 된 것은 궁중연행에서 그 창을 교방여기들이 하게 되면서 연유(緣由)되었고, 민요가 궁중으로 수용되면서 민간 언어를 다듬어 왕이나 귀족들의 퇴폐적(頹廢的) 기호에 맞도록 변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과 고려의 세대변화에 따른 속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도 이유가 되는데, 예를

105) 『증보문헌비고』 제106권 악고(樂考) 17. 安鼎福曰光宗喜觀俗樂崔承老上書非之所謂俗樂倡伎之戲也傳粉施朱百媚千態淫褻之心銷雅正之氣莫此若也…文宗麗之賢主而不能正之後王之溺於荒淫未必非文宗啓之也.(안정복은 “광종(光宗)이 속악(俗樂) 보기를 좋아하니, 최승로(崔承老)가 글을 올려 비난하였다. 이른바 속악이란 것은 창기(唱伎)의 희롱인데, 분을 바르고 붉은 칠을 하여 백천 가지로 아리따운 자태를 꾸며서 음탕하고 외설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맑고 바른 기운을 사라지게 함이 이와 같은 것이 없다.…문종은 고려의 어진 임금인데 능히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뒤에 임금이 음탕함에 빠뜨려진 것은 반드시 문종이 열어 놓은 것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106) 『고려사』악지에 전하는 당악의 노래말에도 <오양선>, <낙양춘>, <취태평>등 여성화자가 애상적인 정조로 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 많다.

들면 충신연주지사로 쓰였던 <정과정>조차 이익(李瀼)의 시대에 가면 “곡의 처완(棲婉)함이 지나치다”고 하여 경계되는 것¹⁰⁷⁾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강명혜는 <서경별곡>을 애정 속가류로 보는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송축·연군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서경별곡>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는 고려속가가 제례악을 포함한 그 기능이 풍요(豐饒)나 송도지사(頌禱之詞), 연군지사(戀君之詞)에 있다고 하였다. 속가 중 특히 ‘남녀상열지사’로 환원되는 노래의 원래 기능은 신을 찬송(讚頌)하는 관습에서 연유하였으나 점차 왕을 송도·축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더 후대에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면서 폄하되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서경별곡>을 송축과 연군을 노래한 것으로 본다. 묘청을 비롯한 조광·유참 등의 서경세력은 서경천도(西京遷都)가 인종과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좌절되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서경세력 중에는 이들과 입장을 달리하여 왕실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쩔 수 없이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도 많았다. 그리하여 반란을 평정하는 것을 돕고 왕실을 지지하게 된 김정순(金正純) 등에 의해 왕에 대한 연모와 충성을 호소하는 노래가 생겨나게 되었고, 후에는 인종의 은혜에 감화된 서경민들(반란에 가담한)에까지 확산되어 불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창작된 <서경별곡>은 왕실에 대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노래한 것으로 연군가(戀君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궁중의 제례악(祭禮樂)이나 연악(宴樂)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노래가 평조(平調)로 연행되었다는 사실도 이 노래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시용향악보』에 따르면 이 노래의 선법(旋法)은 계면조(界面調)가 아니라 평조로 되어 있다.¹⁰⁸⁾ 평조는 화평(和平)

107) 이익, 『성호사설』, 제13권 인사문 국조악장(人事門 國朝樂章)조.

108) 허왕옥은 이 노래가 평조로 연행되었다면, 지나친 애상을 초극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작품 속에 들어 있거나, 노래자체의 가사내용이 지금까지의 해석과 다르거나, 적어도

한 느낌을 주며, 계면조는 애원(哀怨)한 느낌을 주는데 이 노래가 평조로 연행되었다면 님에 대한 원망이나 의구심(疑懼心)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들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⁰⁹⁾ 따라서 기존의 버림받은 여성화자의 님에 대한 원망과 한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무리가 따르고, 필자의 견해와 같이 님에 대한 연모(戀慕)의 정과 일편단심을 맹세하는 노래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비록 셋째 단락에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와 같이 비유물을 통한 애정의 맹세가 나타나지 않고, 제삼자인지 하지만 사공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를 통해 님에 대한 끈질기고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서경별곡>은 전 단락에 걸쳐 시종일관(始終一貫) 님에 대한 애정과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연군가(戀君歌)인 것이다.

2. 연군가적 성격분석

인간이 사는 곳에 으레 이별이 있고 그 이별을 소재로 삼은 사연들이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인류의 정서에 점철(點綴)되어 왔거니와, 그러한 이별의 노래들 중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노래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다. 부부의 애틋한 이별을 노래한 <예성강(禮成江)>도 그러하거니와 지

결사부분이 애상적 어조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왕욱, 「<서경별곡>의 시적 구조와 화자」, 『문학교육학』 제11집, 문학교육학회, 2003, p.312.

109)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궁·상·각·치·우조는 중국의 선법(旋法)이고, 평조와 계면조가 우리의 선법이다. 평조·계면조의 선법이 『시용향악보』의 고려속가 제목 밑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법은 고려시대에 실제 가창된 곡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허왕욱, 앞의 논문, p.312에서 재인용.

상의 어느 곳이나 강과 바다(이별의 공간적 조건)가 인접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는 이별의 사연들이 민요로 불리고 있다. <서경별곡>도 노래의 함의(含意)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노래들과 동류의 노래이다.

<서경별곡>의 무대는 서경(西京)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서경은 고려 태조가 국내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시설이나 관제를 정비했던 곳이다. 태조는 당나라의 침략 이후 황폐화 된 이 지역에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고 재성(在城)과 나성(羅城)을 축조하였고, 중앙과 거의 같은 관제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도인 개경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두었다.

그리고 서경은 행정이나 제도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지만,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도 대단한 것이어서 모두 그 자연 경관에 입을 모을 정도였다. 대동강은 우리 대대 문학의 배경이 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대동강 기슭에 자리 잡은 부벽루(浮碧樓)는 고래(古來)로 많은 시인문객이 찾아와 음영(吟詠)을 남긴 곳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이 <서경별곡>의 화자는 훌륭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사회·정치·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을 고향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지금님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별을 거부하며 언제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본 장에서는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살펴보고 작품이 가지는 연군가적 성격도 밝혀 보고자 한다. 내용상 세 단락¹¹⁰⁾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별에 대한 거부와 충성의 호소

서경(西京)이 아즐가

110) 연구자에 따라 세부분으로 나누어 ‘서경노래’, ‘구슬노래’, ‘대동강노래’라 칭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이라 칭하기로 한다.

서경이 서울히 마르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좇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화자의 고향인 서경은 고려시대 왕경(王京) 이외의 서울 즉, 서경(西京), 동경(東京), 남경(南京)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되고 그 위상이 가장 높았던 서울이다. 노래의 시작부터 이별의 상황은 전개되는데, 님이 떠나는 상황에서 화자는 고향인 서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다.

‘닷곤디(닭은 곳)’는 서경을 중수(重修)했다는 의미와 함께 조상대대로 생활의 터전을 닦아 왔다는 뜻이 내포되는¹¹¹⁾ 소중한 장소라는 의미로서, 이를 사랑한다는 진술이 첨가되어 그 곳이 화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고향은 교통·통신문화의 발달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도,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도 있는 곳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향 바깥으로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소중한 고향을 버리고 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111) 박종태, 「청산별곡과 서경별곡의 구조」, 『국어교육』 제46·4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5, p.140.

화자에게 있어 님은 길쌈베나 고향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짐작하건대 님의 사랑이 부재한다면 길쌈베나 고향을 버리게 되는 상황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따르겠다는 진술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셋째 단락과 연계하여 볼 때, 결과적으로 화자는 서경을 이탈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진술의 이면에는 님을 발길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인종(仁宗)은 이자겸의 난 이후 실추(失墜)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묘청을 비롯한 서경세력과 결탁하여 난국(難局)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인종은 묘청과 백수환을 크게 신임하여 그들의 견해를 좇아 서경에 자주 순행하였으며 서경천도까지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경에서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는 유신지교(維新之敎)를 발표하였고, 묘청 등의 건의를 좇아 대화궁(大華宮)과 팔성당(八聖堂)을 축조하는 등 서경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왕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서경에 순행한 터라 매사 근신하면서 좋은 일만 하였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왕에 대하여 각별한 정도 들고 왕을 흠모하는 감정에 빠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던 중에 묘청 일파의 허상(虛想)이 드러나 인종의 신임을 잃게 되고, 이어 인종과 서경세력이 정치적 방향의 차이로 결별하게 되면서¹¹²⁾ 묘청을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낳았다. 이때를 전후로 하여 서경세력은 내부가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국가적 반란을 도모한 묘청 일파와는 달리 왕권의 안정을 꾀하며 왕실을 지지하는 김정순(金正純)과 노영거(盧令居), 정정숙(鄭旌淑) 등의 서경세력은 반란을 평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112) 서경세력과의 정치적 방향에서 뿐만 아니라 묘청반란을 전후로 해서 인종의 서경 순행은 중단된다. 이것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인종이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개경세력의 편에 선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서경을 사랑하지만 왕께서 사랑해주신다면 그토록 소중한 고향도, 생업도 다 버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왕의 뜻을 따르겠노라 충성을 노래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왕을 좇겠다는 의미는 직접 왕을 모시고 곁에 있고 싶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그 정도로 강하며 언제까지나 왕의 뜻을 따르고 받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금은 묘청의 무리에 의해 왕이 떠나가시지만 다시금 나와 서경을 다시 돌아봐주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이와 같은 왕을 향한 어사는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송강이 자신을 한 여자의 몸으로 비유하고 선조 임금을 님이라 하여 그 둘 사이의 천분(天分)과 사랑을 말하였던 <사미인곡> 서사(序詞) 첫 행의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이 몸이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겼으니)와 제4행의 ‘이 님은 이스랑 견줄디 노여없다’(이 마음 이사랑 견줄 데 다시없다) 한 것과 같이 왕에 대한 신하의 애정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둘째 단락에서도 이어진다.

길쌈배가 나오고 시종일관(始終一貫) 님을 좇으려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인해 여성의 작으로 추측하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연군지정(戀君之情)을 읊은 <사미인곡>에서도 여성과 관련된 몸단장, 바느질, 규방(閨房)의 치장과 같은 소재가 등장하므로 작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생업(生業)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¹¹³⁾

박노준¹¹⁴⁾과 정양¹¹⁵⁾은 <서경별곡>의 첫째 단락을 김소월의 <진달래

113) 강명혜는 ‘길쌈’의 행위를 신화적 모티프로 해석하여 신을 섬기는 기본의례로 보고 직조의 결과가 누구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환치시킬 수 있기에 ‘신과 인간’,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의 치환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서경별곡>의 ‘길쌈배를 버리고 님을 좇겠다는 토로’는 ‘중요한 생업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 하였다. 강명혜, 앞의 책, pp.178-179.

114) 박노준, 앞의 책, pp.276-277.

꽃>과 비교하여 <진달래꽃>의 구절 가시는 걸음마다 약산(藥山)의 진달래 꽃을 뿌려놓음으로써 걸음걸음마다 향토에 대한 애착과 함께 화자의 사랑을 환기(喚起)시키고, 그렇게 자연사물(환경)에 도움을 얻어서라도 떠나려는 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태도를 <서경별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화자와 님의 고향이 같아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고향이 같은 님이라면 화자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에 그렇게 매몰차게 떠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경별곡> 속의 님은 끝까지(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부정적이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와 님의 고향은 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준¹¹⁶⁾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화자가 단락 서두에서 ‘서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님의 고향이 개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잘 정리된 서경이란 의미를 생각해서 ‘서경이(개경처럼)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나와 이곳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로 보았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님의 고향을 개경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당시 수도가 개경이고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개경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나는 소중한 고향도 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니 떠나지 마시고 나와 서경을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2) 신의와 충성의 강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115) 정양, 「<서경별곡>고」, 『논문집』 제3집, 우석대학교, 1981, p.68.

116) 김명준, 「<서경별곡>의 구조적 긴밀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p.65.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흔히를 아즐가
 즘흔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돈 아즐가
 신(信)잇돈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둘째 단락은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小樂府)에 한역되어 전하며¹¹⁷⁾ <정석가(鄭石歌)>의 6연과 동일한 구절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님에 대한 신의는 변함이 없음을 맹세하는 부분이다. 이 공통부분은 연구자에 따라 독립가사, 유행가, 관용구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서 차용해왔다고 보기보다는 당시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유행하던 별개의 노래가 어떤 의미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양 가요에 수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 단락은 기존 논의에서 단순한 내용임에도 시어의 비유와 상징, 그리고 반복된 구조로 인해 어석상의 쟁점보다 작품 해석상의 쟁점이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17) 『익재난고』 제4권 소악부(小樂府).

縱然巖石落珠璣	설령 바윗돌에 구슬을 떨어뜨리더라도
纓縷固應無斷時	끈실만은 끊어지지 않으리니
與郎千載相離別	님과 천추의 이별을 하였으나
一點丹心何改移	한 점 붉은 마음은 어찌 고쳐 바꾸리

구슬과 나는 ‘깨지기 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끈과 믿음이라는 결코 ‘깨지지 않은 힘’에 의하여 ‘깨뜨리는 힘’(바위, 이별)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상승되는 것이다. 이때 깨진다고 하는 것으로 비유된 의미는 이별 후의 외로움이 될 것이다.¹¹⁸⁾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면 깨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크며 한 조각 한 조각 날카롭게 빛나는 모습이 얼마나 영롱할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는 구슬을 쥔 끈은 끊어지지 않고 서로의 믿음도 지속된다고 하면서 파탄을 거부하는 전환을 보여 주었다.¹¹⁹⁾

‘구슬 단락’의 결과 속의 중심축은 의연 ‘신의(끈)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옆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속뜻이 곧 ‘님과의 이별=구슬의 깨어짐=구슬은 나와 닮아 보배로운 것. 따라서 구슬이 깨어짐은 두 사람이 똑같이 감수하여야 할 아픔→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머물게 함’이 될 수 있다.¹²⁰⁾

‘구슬의 끈’에 비유된 신의(信義)의 견고함, ‘바위로 떨어지는 구슬’에 비견된 홀로된 시련의 아픔.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천년’의 기다림은 허풍스럽고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보다 신의에 대한 숭고함과 절대성으로 인해 듣는 이의 마음마저 숙연하게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¹²¹⁾

둘째 단락의 발화의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슬이 깨어짐을 두 사람의 이별로, 신의를 두 사람의 실현가능성으로 보는 데서 논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118) 신은경, 앞의 논문, p.211.

119) 조동일, 앞의 책, p.150.

120) 박노준, 앞의 책, p.279.

121) 유효석, 「〈서경별곡〉의 편사의식」,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인문과학연구소, 집문당, 1996, p.454.

첫째 단락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들먹이며 떠나는 님을 만류하고자 했던 화자는 둘째 단락에 와서 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더욱 강조한다. ‘구슬이~그즈리잇가’와 ‘즈믄히를~그즈리잇가’로써 같은 뜻을 반복하여 강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구슬’은 깨지기 쉬운 것, 순간적인 것을 표상하며 영원할 수 없는 유한성(有限性)을 지니는 것이고 ‘바위’는 사랑의 지속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逆境)을 뜻한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님의 사랑이 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한 변심에 의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끈은 그리하여 님과의 이별의 상황에 닥치더라도 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은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님과 헤어져 홀로 지낸다하더라도 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은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의를 거듭 강조한다.

둘째 단락은 첫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님에 대한 신의를 맹세하는 것이지만 첫째 단락에서 이별을 거부하며 님을 붙잡고자 했다면 이 단락에 와서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지금 님은 나를 떠나가지만 저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님을 기다릴테니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것은 한용운의 시 <나룻배와 행인>의 구절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잡니다.’와 같이 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희생적 사랑을 숭고한 기다림으로 승화시킨 단락인 것이다.

신은경은 둘째 단락을 <서경별곡>의 경우는 상호쌍방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해석하였고, <정석가>의 경우는 일방적 사랑으로 해석하여 각각 달리 의미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경별곡>을 상호쌍방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해석하기에는 한 쪽의 신의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할 말을 다하는 성품을 가진 화자임에도 님에게는 무척 삼가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122) 신은경, 앞의 논문, pp.212-213.

을 통해 그러한 해석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앞에서 필자가 <서경별곡>을 ‘왕을 향한 충성과 연군의 정을 읊은 것’이라고 추정한 것을 바탕으로 <정석가>와 같은 일편단심격의 일방적 사랑, 즉 왕에 대한 신의와 절의를 노래하며 왕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노래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둘째 단락은 첫째 단락에 이어 더욱 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강조하여 님을 감화시킴으로써 머무르게 하려는 화자의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님은 화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반면 화자는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열등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3) 체념과 관심을 호소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넬빅예 아즐가
넬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세 번째 단락의 공간적 배경은 대동강이다. 강은 고대가요인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부터 현대시 <이별가(離別歌)-박목월>에 이르기까지 이별이나 죽음의 매개체로 등장하여 일찍부터 문학의 소재로서 다루어져 왔다. 그 유명한 정지상의 <송인(送人)>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이별을 슬픔을 읊은 한시이다. 이 연을 앞의 첫 단락과 더불어 『고려사』 악지에 전하는 <서경>과 <대동강>과 관련지어 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유서 깊은 도시인 서경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 애환 많은 대동강에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므로 서경이나 대동강을 소재로 한 노래도 많았을 것이다. 따라서 악지소재 <서경>과 <대동강>의 관련 기사가 <서경별곡>과 별다른 공통분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명이 등장한다고 해서 연계시키려 애쓰는 것은 무모하다.

셋째 단락에서는 님이 배를 타고 떠나는 이별의 현장이 전개된다. 왕이 대동강을 건너 서경을 떠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왕이 떠나갔다는 의미의 상징으로 보아도 좋겠다. 대동강은 실제로도 넓은 강이지만 님과의 이별이 실현되는 공간이니만큼 화자에게는 심리적으로 더욱 넓게만 느껴진다. 님과 헤어져 님의 사랑을 잃는 것은 고향을 버리는 일보다 더 싫지만 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님에게 원망의 말조차 할 수 없는 화자이기에 애꿎은 사공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즉 이별 앞에

무력한 화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님을 태우고 떠나는 사공에게 비난을 하는 것 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공이 정말 미워스러기보다는 님이 떠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사공에게 외설스런 욕을 해대는 것이다.

이 때 ‘네가시럼난디’에 대한 어석이 문제가 되는데, ‘네가 시럼난디’로 분절할 것인가, ‘네 가시 럼난디’로 분절할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 박혜숙¹²³⁾은 전자의 분절대로 해석하면 의미는 자연스러우나 그렇게 볼 실증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후자의 분절대로 해석하면 시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둘의 해석상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조는 험난조(詬難調)로 사공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지 본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자아(自我)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방어기제(精神防禦機制)를 발동한다고 한다.¹²⁴⁾ <서경별곡>의 화자의 행동은 정신방어기제의 하나인 전치(displacement)로 설명될 수 있는데, 전치란 불안, 분노와 같이 본능적인 감정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었다가 원래의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동물 등 (사회적, 혹은 상황적으로) 덜 위험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랑만 해준다면 고향이며 생업이며 다 버리고 따르겠노라고 하소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님은 떠나버리고, 더 이상 님을 붙잡을 수도, 님에게 원망을 직접 토로할 수도 없는 처지의 화자는 엉뚱하게도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공에게 분노를 전가(轉嫁)시켜 표출하게 된 것이다.

123) 박혜숙, 앞의 논문, p.294.

124)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출판사, 2003, p.286.

결국 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나면 건너편 꽃을 꺾겠지요’라며 체념하며 이별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박노준의 견해처럼¹²⁵⁾ 이별을 받아들이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식의 파국(破局)을 드러낸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경별곡>이 다른 노래에 비해 유별나서 안 된다는 법은 없다하더라도 것처럼 느닷없는 정서적 돌변, 급작스런 애정과탄은 속가 일반의 내용이 보여주는 보편성에서 너무 일탈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속가들 <이상곡(履霜曲)>, <동동(動動)>, <가시리>, <만전춘(滿殿春)> 등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결별을 당한 경우지만 그 주인공들은 어떤 경우에도 님을 상대로 자기 쪽에서 배반의 감정을 노골화(露骨化)시키면서 끝장을 선언하는 일은 없었다. 또한 <서경별곡>이 아무리 민요에서 수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궁중악으로 쓰인 노래이므로 떠나는 님을 향한 원망과 질투의 감정을 그악스럽게 퍼부어 대는 화자의 말투가 수용되었을 리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님은 대동강을 건너고 건너편 꽃을 꺾겠지요’라며 이별에 대한 체념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그 내면에는 ‘다른 꽃을 꺾지 마시고 저를 다시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내포(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대동강 건너편의 꽃은 화자의 질투의 대상으로 다른 신하 혹은 다른 일로 해석이 가능하나 역사적 문맥에 맞춰 생각한다면 당시 인종(仁宗)이 서경세력에 돌아서서 개경세력의 편에 섰으므로 다른 신하, 즉 개경세력으로 보면 될 것이다. 묘청의 일파에 의해 왕은 다른 꽃(개경세력)을 찾아 떠나갔지만 언제까지나 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다할 것이며, 다시금 서경과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물론 김정순(金正純) 집단과 서경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구체적 이유는 다르지만¹²⁶⁾ 왕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고 왕을 연모하는 그 마음만은 같다.

125) 박노준, 앞의 책, pp.280-286.

그렇다하더라도 <서경별곡>의 셋째 단락에 나타나는(물론 이것은 사공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비난조의 목소리와 상대를 헐뜯는 말투는 궁중 송도가의 어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서경별곡>이 궁중악으로 쓰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당시 왕실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여유의 폭이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제작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투는 기피(忌避)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지만 이미 유포되어 있는 노래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손한 표현은 아니지만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첫째, 둘째 단락과 더불어 모두 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이 결부되어 있어서 셋째 단락의 말투가 가진 그늘진 요인을 많이 희석(稀釋)시켜주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궁중악가(宮中樂歌)로 용이하게 뿌리내렸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정과정곡>의 경우를 떠올리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다. <정과정곡>은 정서(鄭敼) 이후 충신연주지사로서 오랫동안 신하들로 하여금 익히도록 장려(獎勵)된 노래이다. 그러나 엄격히 따질 때 <정과정곡>은 왕이나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애착이 갈 수 있는 성격의 노래는 아니다. 우선 그 창작 배경부터가 그러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물론 왕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과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하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왕을 원망하는 소리로 병존(竝存)하고 있다.

이것은 왕이나 왕실 쪽에서 볼 때는 듣기에 거북한 대목임이 분명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일면(一面)도 주지가 부정적인 다른 측면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과정곡>은 충신연주지사의 표본(標本)으로

126) II-2, p.40 참조.

정착되어 널리 가창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서경별곡>의 경우 또한 이와 유사한 예인 것이다.

3. 문학사적 의의

본고에서는 <서경별곡>의 창작배경과 연군가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서경별곡>을 남녀상열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는 고려 시대의 서경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작품 창작의 동인(動因)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고찰하여 <서경별곡>이 고려시대 서경에서 널리 불리어지던 송축(頌祝)·연군가(戀君歌)였다는 것을 구명(究明)하였다. 그리고 <서경별곡>과 더불어 궁중악으로 쓰인 속가에 나타나는 여성화자의 사랑노래 형식은 왕에 대한 송축이나 연모(戀慕)의 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당시 악장(樂章)으로서 속가가 가지는 특질 중 하나라 보았다. 또한 <서경별곡>은 서경 지방에서 널리 불리어지던 민요였지만 연군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취택(取擇)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속가가 이어(里語)로 되어 있으며, 조선조의 유교적 시각에서 점잖지 못하다는 지평(地平) 아래 그 곡명은 물론 가사가 전해지지 않은 작품이 많은 것과 같이 <서경별곡>도 조선조의 기록을 통해서야 그 존재여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서경별곡>이 언제, 어떻게 궁중으로 유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선 성종 때 그 비리함을 들어 산개되기 이전까지는 궁중악으로 꾸준히 쓰여 왔음을 통해 그 기능이 충신연주시사나 송축가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선초까지는 원래적 의미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나 연악(宴樂)에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세종 이후 악(樂)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시가의 입지(立地), 교화론(教化論)의 확산에 의한 여성관의 경직(硬直) 등 속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노래의 가치가 변하여 산개(刪改)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도전이 지은 <정동방곡(靖東方曲)>과 이후 <화태(和泰)>(세조 이후의 <영관(永觀)>)에 <서경별곡>의 가락이 답습(踏襲)되고 있으나 <서경별곡>의 원래 의미는 상실되었고, 오늘날까지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는 오독(誤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경별곡>이 궁중에서 연행된 제례악(祭禮樂)이었음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전대의 노래처럼 부대설화(附帶說話)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되는데, <서경별곡>이 어떤 배경 하에 생성되었는지, 혹은 적어도 작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라도 곁들여 있었다면 적어도 유녀나 기녀의 노래라든가 음탕한 왕이 즐겼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정과정곡>이 사랑을 잃은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나 여타의 속가와 진배없는 성향을 지녔음에도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 대접받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은 확실하다.

김열규는 한국 문학사에서 신하가 자신을 여인에 비유한 제일 처음의 예를 <안민가(安民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¹²⁷⁾ <안민가>에는 군주(君主)-남, 신하-여의 관계가 다만 상징적으로 비의되어 있다. 그러나 <원가(怨歌)>에 군남신녀(君男臣女)의 구체적 속성이 보다 잘 드러난다고 보아, 한국 문학사의 충신연주지사의 최초 작품을 <원가>로 보는 논자도 있다.¹²⁸⁾

<원가>에는 님의 사랑을 잃었음에도 도리어 님의 축복을 비는 여인의

127) 김열규, 앞의 책, p.420.

128) 김영수, 『조선초기시가론연구』, 일지사, 1989, p.158.

조용한 목소리가 나타난다. <서경별곡>에서는 ‘네가시럽난디몰라셔’와 같이 세련되지 않은, 다소 야유를 띤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과정곡>에서는 <서경별곡>에서 보듯이 한 여자가 투정을 부리며 사랑을 갈구하는 방식으로 왕에 대한 절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그러나 <서경별곡>은 <원가>나 <정과정곡>과 비교하거나, 그리고 후대의 <사미인곡>과 비교하면 그 원망의 도(度)가 덜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신연주지사로 부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여성화자의 입을 통해 님에 대한 연모의 정을 읊는 방식은 충신연주지사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후대 시조와 가사(歌辭)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 초의 속요체 악장 <감군은(感君恩)>을 비롯하여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화양동(華陽洞) 깊은 골에 피해 살면서 읊은 시조 “님이 혀오시매”¹²⁹ 등 연군을 노래하는 많은 시조들이 창작되었으며,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등 가사에까지 계승되어 한국 시가사(韓國詩歌史)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경별곡>은 여타의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에서와 같이 여성화자의 사랑노래의 방식으로 왕에 대한 찬미(讚美)를 노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원가>에서 <서경별곡>·<정과정곡>·<사미인곡>·<속미인곡>에 이르기까지 충신연주지사의 맥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29) 님이 혀오시매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는 정을 뉘손대 옮기신고

처음에 뉘시던 것이면 이대도록 설울까.

강직(強直)으로 청사(靑史)에 이름이 드높은 유학자의 노래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약한 감상에 젖어 있다. 그 정에 있어 여인의 사랑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연례악(宴禮樂)과 제례악(祭禮樂)의 가사(歌詞)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에서 ‘남녀상열지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러한 평에서 크게 탈피(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서경별곡>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를 고찰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따라서 <서경별곡>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통해 작품의 창작배경과 작자층, 그리고 연군가적(戀君歌的)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경별곡>이 서경(西京)에서 유행하던 민요에서 수용된 것이니 만큼 그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역사성(歷史性)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고려의 서경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며, 고려 초 태조에 의해 호족들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지지기반(支持基盤) 마련을 위해 육성(育成)된 곳이었다. 따라서 <서경별곡>은 이러한 배경 속에 놓이게 되고, 작품 속에 나타나는 별리 문제는 떠나는 주체가 서경세력과 개경세력의 역학관계(力學關係)에 처해 있었음을 말해주며 그 대상은 왕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문헌에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문맥을 찾은 결과, 인종대 묘청의 반란이 일어난 시기에서 반란이 평정(平定)된 시기 사이에 노래가 창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종대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

(多事多難)한 시기였다. 대외적으로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여진(女眞)이 장성하여 군신(君臣)의 예를 요구하며 압박하였고, 안으로는 이자겸·척준경 등의 난동(亂動)으로 개경 궁궐이 불타고 왕권이 실추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인종은 이자겸의 전횡(專橫)으로 비대해진 개경세력을 서경세력으로써 견제하였고, 이후 묘청을 비롯한 서경세력과 결탁하여 천도(遷都)까지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허상(虛想)이 드러나자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게 되면서 서경세력과 결별(訣別)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전후로 하여 서경세력은 내부가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서경별곡>은 이 무렵 서경출신의 김정순, 노영거 등의 왕실을 지지하는 세력집단에 의해 창작되어 그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일반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어 확산되었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작품 속에는 당시 고려 왕실과 더불어 서경세력과 개경세력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과 묘청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경인들의 왕에 대한 연모와 충성 등 당대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앞 장에서 살펴본 작품의 창작배경과 작자층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한 결과, <서경별곡>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이 아닌 왕에 대한 충성과 그리움을 내용으로 하는 연군가(戀君歌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즉 님은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소중한 서경과 생업)도 다 버리고 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님에 대한 신의와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노래하니 왕실과 개경의 중앙 지배층에는 더없이 흡족한 가사 내용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질적이라고 보아온 셋째 단락에서 사공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를 통해 님에 대한 끈질기고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서경별곡>은 텍스트 전반에

걸쳐 왕에 대한 영원한 신의와 충성을 표명(表明)하는 연군(戀君)의 노래인 것이다.

그리하여 <서경별곡>은 <정과정곡>과 같이 여성화자의 입을 통해 연군을 노래하는 충신연주지사의 하나로, <원가(怨歌)>에서 <사미인곡(思美人曲)>에 이르기까지 충신연주지사의 맥을 계승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자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성호사설』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단행본>

- 강명혜, 『고려속요·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 2002.
국어국문학회,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1973.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새문사, 1986.
김열규 외,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_____, 『한국문학사』, 탐구당, 1992.
_____,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새문사, 1974.
김영수, 『조선초기시가론 연구』, 일지사, 1989.
김윤곤, 『한국중세의 역사상』,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2001.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김쾌덕,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_____, 『고려속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5.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1980.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7.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1994.
 백영 정병욱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성균관대인문과학연구소, 『고려가요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여중동, 『한국문학사』, 형설출판사, 1975.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출판사, 2003.
 이성주, 『증보 고려시대의 가요』, 민속원, 1998.
 이영태, 『고려속요와 기녀』, 경인문화사, 2004.
 임기중 역,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경운출판사, 1993.
 정상균, 『한국 중세시문학사 연구』, 한신문화사, 198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하현강,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88.

<논문>

강성원, 「묘청의 재검토」, 『국사관논총』 제1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0.
 강명혜, 「고려속요의 송도성」, 『고전문학연구』 제15집, 한국고전문학회, 1999.
 강미정, 「가족제도로 본 <서경별곡>의 남녀상열지사론」, 『겨레어문학』 제26집, 겨레어문학회, 2001.
 강민정, 「정지상의 정치활동과 사상」, 『이대사원』 제33·34집, 이대사학회, 2001.
 강옥엽, 「고려인종대 서경민의 항쟁과 서경세력의 분화」, 『사학연구』 제58·59집, 한국사학회, 1999.
 ———, 「인종대 서경천도론의 대두와 서경세력의 역할」, 『사학연구』 제55·56집, 한국사학회, 1998.
 권오경, 「남호 정지상의 시세계 연구」, 『문학과 언어』 제23집, 문학과언어학회, 2001.

- 권재선, 「<서경별곡> 어식」, 『한민족어문학』 제7집, 한민족어문학회, 1980.
- 김미영, 「<서경별곡>의 구조 연구」, 『연세어문학』 제28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 김신, 「북방무역의 시대적 고찰」, 『무역학회지』 제18집, 한국무역학회, 1993.
- 김옥순, 「<서경별곡>에 관한 비교문학적 접근」, 『이화어문논집』 제5집, 이화어문학회, 1982.
- 김창룡, 「<서경별곡> 연구」, 『동방학지』 제69집, 연세대국학연구원, 1990.
- 김창현, 「고려 초기 정국과 서경」, 『역사연구』 제80집, 한국사학회, 2005.
- 김명준, 「<서경별곡>의 구조적 긴밀성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8집, 한국시가학회, 2000.
- 김남규, 「고려 인종대의 서경천도 운동과 서경반란에 대한 일고찰」, 『경대사론』 제1집, 경남대학교사학회, 1985.
- 김기덕, 「고려시대 개경과 서경의 풍수지리와 천도론」, 『한국사연구』 제127집, 한국사연구회, 2004.
- 김승찬, 「정지상론」, 『국어국문학』 제20집, 문창어문학회, 1983.
- 박성규, 「정지상론(鄭知常論)-그 생애와 시대의식」, 『한국한문학연구』 제3집, 한국한문학회, 1978.
- 박재민, 「<정석가> 발생시기 재고」,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 박진태, 「<청산별곡>과 <서경별곡>의 구조-대칭·대립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46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3.
- 박혜숙, 「고려속요의 여성화자」,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회, 1998.
- 백남혁, 「묘청(妙淸)의 서경 천도운동의 연구」, 『한성사학』 제10집, 한성사학회, 1998.
- 서재극, 「<서경별곡>의 “네가시럽난디” 재고」, 『어문학』 제27집, 한국어문학회, 1972.
- 신은경, 「<서경별곡>과 정석가의 공통삽입가요에 대한 일고찰」, 『국어국문학』 제96집, 국어국문학회, 1986.

- 유동석,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한 새 풀이」, 『한국민족문화』 제14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 이계양, 「<서경별곡>의 시간현상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15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임주탁, 「<서경별곡>의 텍스트독법과 생성문맥」, 『한국민족문화』 제19·20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 장사훈, 「<서경별곡>」, 『한글』 제113집, 한글학회, 2001.
- 정양, 「<서경별곡>고」, 『논문집』 제3집, 우석대학교, 1981.
- 진석우, 「고려 인종대 서경천도론의 정치적 성격」, 『논문집』 제17집, 호남대학교, 1996.
- 최용수, 「<서경별곡>고」, 『어문학』 제48집, 한국어문학회, 1986.
- 한정수, 「<서경별곡>과 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2집, 장안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 허왕욱, 「<서경별곡>의 시적 구조와 화자」, 『문학교육학』 제1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 하현강, 「고려서경고」, 『역사학보』 제35·36집, 역사학회, 1967.

<학위논문>

- 강옥엽, 「고려전기 서경세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강성원, 「『고려사』 열전 연구 : 반역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9.
- 안경희, 「고려속요의 궁중가악으로의 수용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윤선희, 「<서경별곡>에 나타난 도시 시정인의 정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및 전승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 최미정, 「고려 속요의 수용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황병익, 「고려속가의 연행 상황과 연행상의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